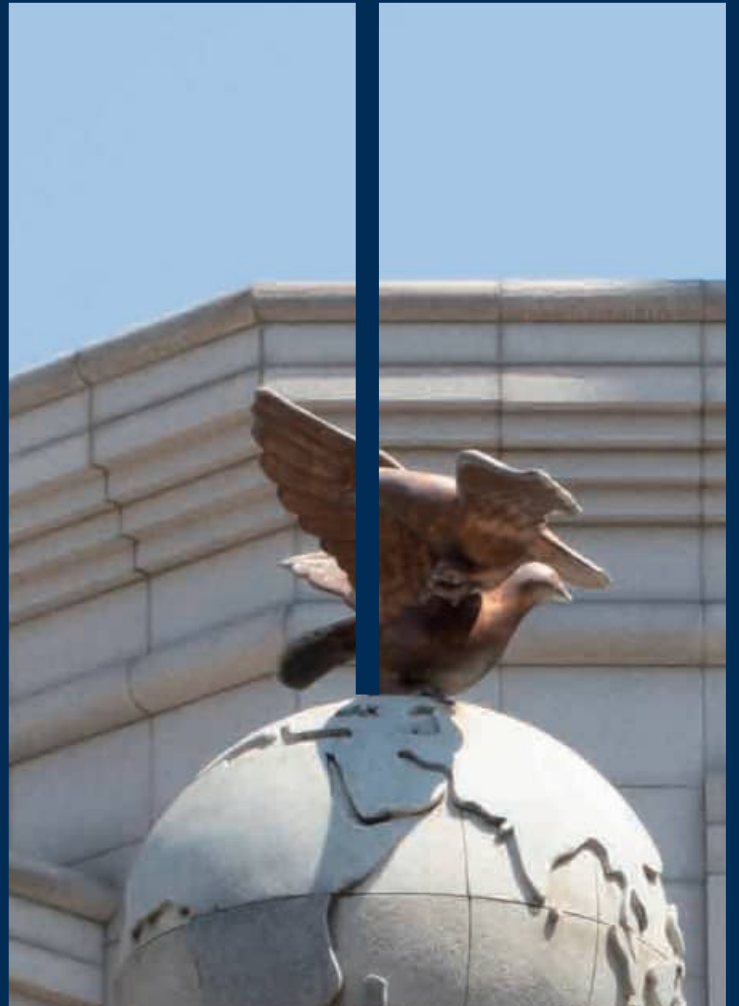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가이드북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LOBAL
INNOVATOR**

외대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도약

개교 70주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맞이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00년 외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전진합니다.

융합 교육과
혁신적인 도전을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최우수 혁신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멈추지 않는 꿈을 가지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HUES

100년 외대를 향한 비전

“학생이 꿈을 꾸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대학”

WURI 대학평가
‘최우수 혁신대학’ 선정

HISTORY

- 1954 • 한국외국어대학교 설립
- 외국학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
- 1963~1979 • 외국어와 사회과학의 접목
- 1980 • 글로벌캠퍼스 설립
- 종합대학교 체제 확립
- 이공계 대학 신설
- 1987~1997 • 세계화 특성 대학교로 발전
- 국제지역대학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설립
- 지역학 연구 토대를 마련
- 2012 •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한국외대생들과의 대화’
- 2014 • 서울캠퍼스 - 글로벌캠퍼스 통합
- 본·분교 통합과 캠퍼스 확장
- 2023 • AI융합대학을 포함한 8개 모집단위 신설
- 글로벌 융복합 선도대학으로 발전





LEAD TO INNOVATION POWERFUL

미래의 대학 교육을 선도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글로벌 융복합 교육으로 미래 시대 대학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혁신을 중심으로 전 세계 대학을 평가하는 대학평가에서도 '최우수 혁신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7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ACHIEVEMENT

3

세계 대학 총장들이 평가하는 2024년 WURI 대학평가 국내3위(세계27위)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상" 수상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고 등급 달성

2

2024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2년 연속 사립대학 "2위"



2025 QS 세계대학 주제별 순위
'국내 최고 수준의 인문학 교육기관' 인정

우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운영대학
연차성과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서비스 사업 신규 선정

1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2023년 종합평가 1위

45

총 45개 언어를 교육하는
국내 최고의 외국학 교육기관

특수외국어교육선도대학

* 한국외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선정 언어(총 21개 언어)

2018년

선정 중점지원언어(11개)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브라질·포르투갈어
스와힐리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태국어
터키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11

2022년

추가 선정 중점지원언어(5개)

네덜란드어
라오어
스웨덴어
이탈리아어
카자흐어

16

2024년

추가 선정 중점지원언어(5개)

그리스어
아제르바이잔어
우크라이나어
체코어
크로아티아어

21

LEAD TO INNOVATION INTEGRATED

창의 교육을 통해
융복합 인재로 성장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첨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틀에 갇힌 교육이 아닌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융합적으로 바라보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인재를 글로벌 연구역량을 갖추어 나아갑니다.

캠퍼스·계열 벽을 허무는 유연한 이중전공 제도

입학 당시의 전공(제1전공)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전공을 더 이수하는 제도

이중전공, 부전공, 전공심화+부전공 선택

14,566 명



재학생 4명 중 3명

14,566명의 학생들이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

- 2개 이상의 전공 이수
- 단일 전공

* 이중전공, 부전공, 전공심화를 선택할 수 있는 2학년 이상의 신입학한 재학생 기준

mini interview



“캠퍼스별, 계열별 이중전공에 대한 제한이 없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중략)... 졸업 후 진로도 데이터분석가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 분석전문가로도 활약할 수 있어서 유니크한 인재로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에요.”

한OO(통계학과 23)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이중전공 이수

융합전공

2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여 이수하는 제도

일반융합전공(이중전공으로만 이수 가능. 단, 국가리더전공은 부전공 이수 가능)

BRICs(브릭스)전공, EU(유럽연합)전공, 동북아의교통상전공, 문화콘텐츠학전공, 국가리더전공, 세계문화예술경영전공, 상담·UX심리전공, Business & AI 전공, 융복합소프트웨어전공

학습자설계융합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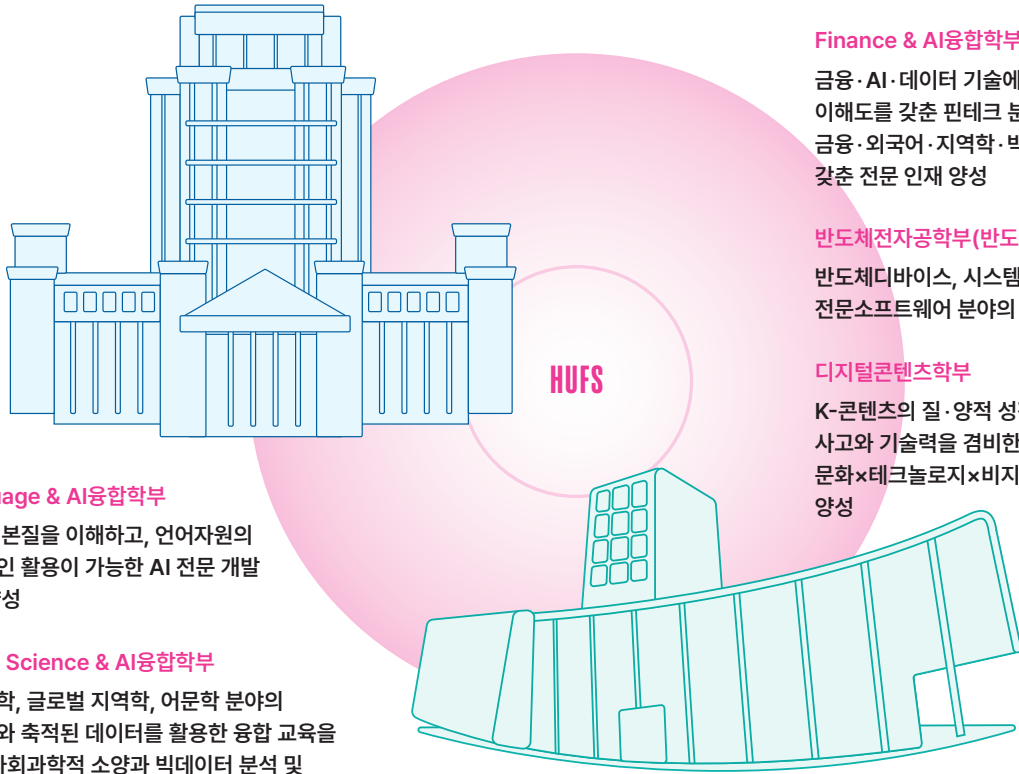
학생이 스스로 교과과정을 설계하여 이중전공으로 이수하는 자기주도적 전공 이수 제도

·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학습자설계융합전공 신청 및 승인 현황

노사관계학	MENA국제경영	미디어경제학
보험계리학	공공인재	유럽데이터디플로머시
지역경제개발협력	관광경영학	비세그라드그림국제경영
지식재산권학	디지털금융	디지털시각예술학
프랑스어와공학	동아시아안보	국제경제데이터사이언스전공
관광경영학	예술미학	디지털콘텐츠경영학
미디어경영	소비자경제학	공학심리학
크리에이티브테크놀로지	HRD프로그램개발	법심리학
법심리학	패션디자인경영학	정책윤리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	법심리학	미디어심리학
프랑스비즈니스	유라시아국제무역	
의류기술경영학	중동문화콘텐츠	



8개의 첨단 융합학부 신설(2023)



Language & AI융합학부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언어자원의 과학적인 활용이 가능한 AI 전문 개발 인재 양성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사회과학, 글로벌 지역학, 어문학 분야의 인프라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융합 교육을 통해, 사회과학적 소양과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

AI데이터융합학부

AI와 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Finance & AI융합학부

금융·AI·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핀테크 분야 인재 및 금융·외국어·지역학·빅데이터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

반도체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전공)

반도체디바이스, 시스템, 첨단 장비, 전문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 양성

디지털콘텐츠학부

K-콘텐츠의 질·양적 성장에 따른 융합적 사고와 기술력을 겸비한 인재, 문화x테크놀로지x비즈니스융합형 글로벌인재 양성

기후변화융합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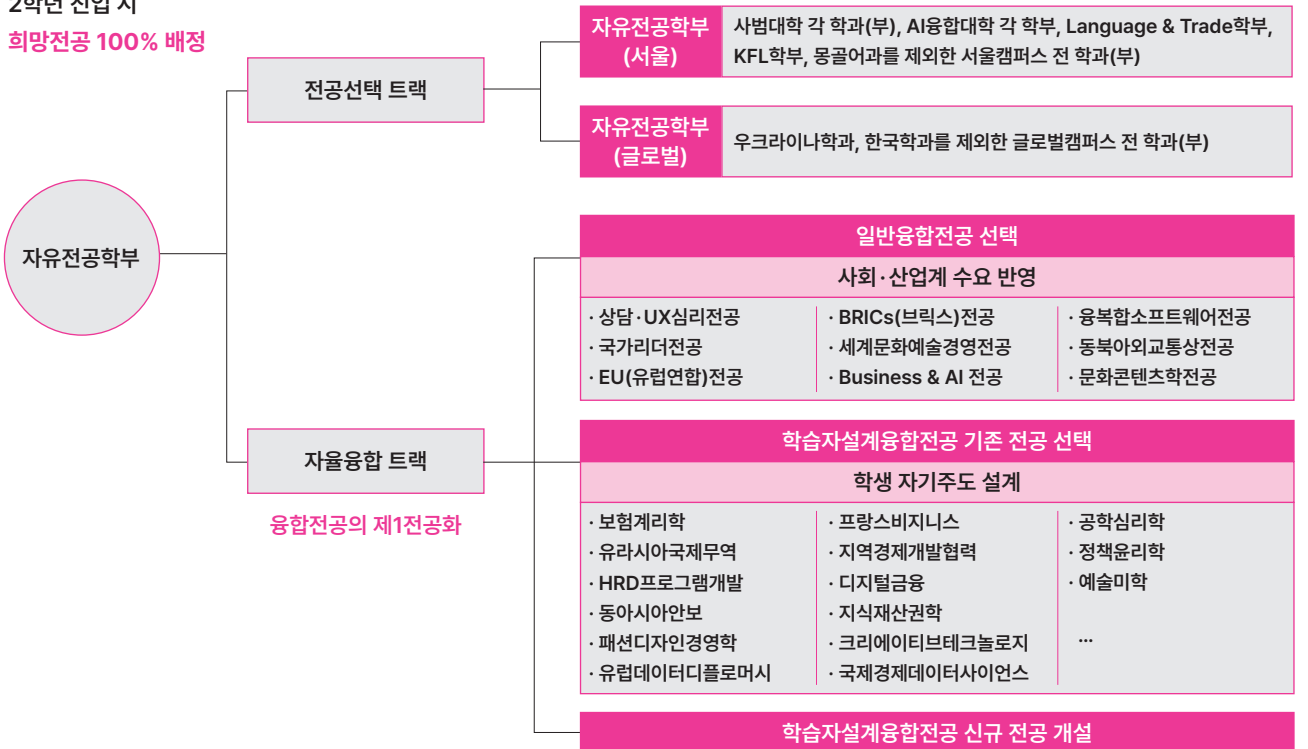
에너지와 기후변화 정책 및 관련 국제협력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산업과 연구를 선도할 융합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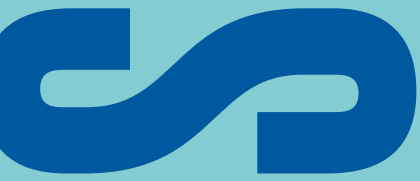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외국어 능력과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글로벌 투어리즘 및 웰니스 분야 전문인재 양성

자유전공학부

2학년 진입 시
희망전공 100% 배정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가이드북

H A N K U K U N I V E



CONTENTS

^p 10 — 01

**논술전형
주요사항 안내**



^p 14 — 02

**2025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p 17 — 03

**2026학년도
논술전형 특징**

^p 21 — 04

한국외대생이
들려주는
논술 합격 비법

^p 25 — 05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

- 26 1. 인문계
- 34 2. 사회계
- 42 3. 자연계



입학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학처 유튜브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고
더 자세한 입학정보 및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세요!

01

논술전형 주요사항 안내

1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항 유형	
서울	영어대학	ELLT학과	11	인문계	
		영미문학·문화학과	11		
		영어통번역학과	9		
	서양어 대학	프랑스어학부	9		
		독일어과	10		
		노어과	6		
		스페인어과	10		
		이탈리아어과	5		
		포르투갈어과	5		
		네덜란드어과	5		
		스칸디나비아어과	5		
	아시아 언어문화 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5		
		태국학과	5		
		베트남어과	5		
		인도어과	5		
		아랍어과	7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5		
		페르시아어·이란학과	5		
		몽골어과	2		
	중국학 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8		
		중국외교통상학부	8		
	일본학 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8		
		융합일본지역학부	5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10		사회계
		행정학과	1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0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11		
		경제학부	14		
	경영대학	경영학부	31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4		인문계
		한국어교육과	2		
외국어교육학부(프랑스어교육전공)		2			
외국어교육학부(독일어교육전공)		2			
AI 융합대학	Language & AI융합학부	7	자연계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7	사회계		
국제학부	3				
Language & Diplomacy학부	8				
Language & Trade학부	6				
자유전공학부(서울)	23	인문계			
합계			306		

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항 유형	
글로벌	인문대학	철학과	3	인문계	
		사학과	3		
		언어인지과학과	3		
	국가전략 언어대학	폴란드학과	2		
		루마니아학과	2		
		체코·슬로바키아학과	2		
		헝가리학과	2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	2		
		그리스·불가리아학과	2		
		중앙아시아학과	2		
		아프리카학부	3		
		우크라이나학과	2		
		한국학과	2		
	경상대학	Global Business & Technology 학부	5		사회계
		국제금융학과	3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4		자연계
		통계학과	4		
		전자물리학과	4		
		환경학과	6		
		생명공학과	6		
		화학과	6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8		
		정보통신공학과	3		
		반도체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전공)	4		
		잔도체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5		
	산업경영공학과	5			
	바이오메디컬공학부	5			
	융합인재대학	융합인재학부	8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	디지털콘텐츠학부	4		인문계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4		
		글로벌스포츠키오학부	3		
AI 융합대학	AI데이터융합학부	4	자연계		
	Finance & AI융합학부	4	사회계		
기후변화융합학부	5	자연계			
자유전공학부(글로벌)	32	인문계			
합계			162		

2 | 자유전공학부(서울/글로벌) 선택 가능 학과(부)

모집단위	선택 가능 학과(부)
자유전공학부 (서울)	ELLT학과, 영미문학·문화학과, 영어통번역학과, 프랑스어학부, 독일어과, 노어과, 스페인어과, 이탈리아어과, 포르투갈어과, 네덜란드어과, 스칸디나비아어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태국학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아랍어과,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페르시아어·이란학과, 중국언어문화학부, 중국외교통상학부, 일본언어문화학부, 융합일본지역학부,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국제통상학과, 경제학부, 경영학부,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자유전공학부 (글로벌)	철학과, 사학과, 언어인지과학과, 폴란드학과, 루마니아학과, 체코·슬로바키아학과, 헝가리학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 그리스·불가리아학과, 중앙아시아학과, 아프리카학부,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국제금융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반도체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전공), 반도체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융합인재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AI데이터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3 | 주요 변경 사항

내용	변경 전(2025학년도)	변경 후(2026학년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각 호수에 따라 전형 총점의 1%부터 전형 총점의 100%(과락, 사정 제외)까지 감점 처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적용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제1호</td> <td>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td> <td rowspan="3">총점의 1% 감점</td> </tr> <tr> <td>제2호</td> <td>피해학생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td> </tr> <tr> <td>제3호</td> <td>학교에서의 봉사</td> </tr> <tr> <td>제4호</td> <td>사회봉사</td> <td rowspan="2">총점의 10% 감점</td> </tr> <tr> <td>제5호</td> <td>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td> </tr> <tr> <td>제6호</td> <td>출석정지</td> <td rowspan="2">총점의 20% 감점</td> </tr> <tr> <td>제7호</td> <td>학급교체</td> </tr> <tr> <td>제8호</td> <td>전학</td> <td rowspan="2">총점의 100% 감점 (과락, 사정제외)</td> </tr> <tr> <td>제9호</td> <td>퇴학처분</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적용 방법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총점의 1% 감점	제2호	피해학생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총점의 10% 감점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총점의 20% 감점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총점의 100% 감점 (과락, 사정제외)	제9호	퇴학처분
		구분	내용	적용 방법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총점의 1% 감점																							
		제2호	피해학생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총점의 10% 감점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총점의 20% 감점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총점의 100% 감점 (과락, 사정제외)																									
제9호	퇴학처분																										

4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5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캠퍼스	모집단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서울	영어대학	ELLT학과, 영미문학·문화학과, 영어통번역학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 혹은 과학탐구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 등급이 4 이내
	서양어대학	프랑스어학부, 독일어과, 노어과, 스페인어과, 이탈리아어과, 포르투갈어과, 네덜란드어과, 스칸디나비아어과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태국학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아랍어과,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페르시아어·이란학과, 몽골어과	
	중국학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중국외교통상학부	
	일본학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융합일본지역학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경제학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학부(프랑스어교육전공), 외국어교육학부(독일어교육전공), 외국어교육학부(중국어교육전공)	
	AI융합대학	Language & AI융합학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경영학부, 국제학부		
	자유전공학부(서울)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글로벌	인문대학	철학과, 사학과, 언어인지과학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 혹은 과학탐구 1과목) 중 1개 영역 등급이 3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 등급이 4 이내
	국가전략언어대학	폴란드학과, 루마니아학과, 체코·슬로바키아학과, 헝가리학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 그리스·불가리아학과, 중앙아시아학과, 아프리카학부, 우크라이나학과, 한국학과	
	경상대학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국제금융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통계학과, 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반도체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전공), 반도체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	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글로벌스포츠평산학부	
	AI융합대학	AI데이터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융합인재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자유전공학부(글로벌)		

- * 탐구영역을 제2외국어 또는 한문으로 대체 불가합니다.
- *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일부 영역만 응시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여도 인정합니다.
- * 지원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는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 전형방법

가. 성적 반영비율 및 점수 : 논술고사 100%(1,000점 만점)

나. 논술고사 출제범위

- 1) 인문/사회계 : 통합교과형으로 고교 교육과정 내
- 2) 자연계 : 수학I, 수학II

7 | 전형일(논술고사)

구분	논술고사				
고사장 안내	2025. 11. 19.(수) 입학처 홈페이지				
전형일	2025. 11. 22.(토)		2025. 11. 23.(일)		
고사시간	[T1]	[T2]	[T3]	[T4]	
	10:00 ~ 11:30	15:00 ~ 16:30	10:00 ~ 11:30	15:00 ~ 16:30	
	90분	90분	90분	90분	
문항유형	인문계	사회계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모집단위	[서울]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중국학대학 자유전공학부(서울)	[서울]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글로벌] 경상대학 Finance & AI융합학부	[서울]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일본학대학 사범대학 [글로벌] 인문대학 국가전략언어대학 융합인재대학 Culture & Technoligy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글로벌)	[서울] 경영대학 국제학부 [글로벌]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AI데이터융합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지정장소				

8 | 동점자 처리 기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아래의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도 성적 총점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처리합니다.

가. 논술고사 높은 배점 문항 성적순

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영역별 성적순

1) 교과 영역별 성적은 학교장추천전형의 반영교과목 및 교과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교과점수를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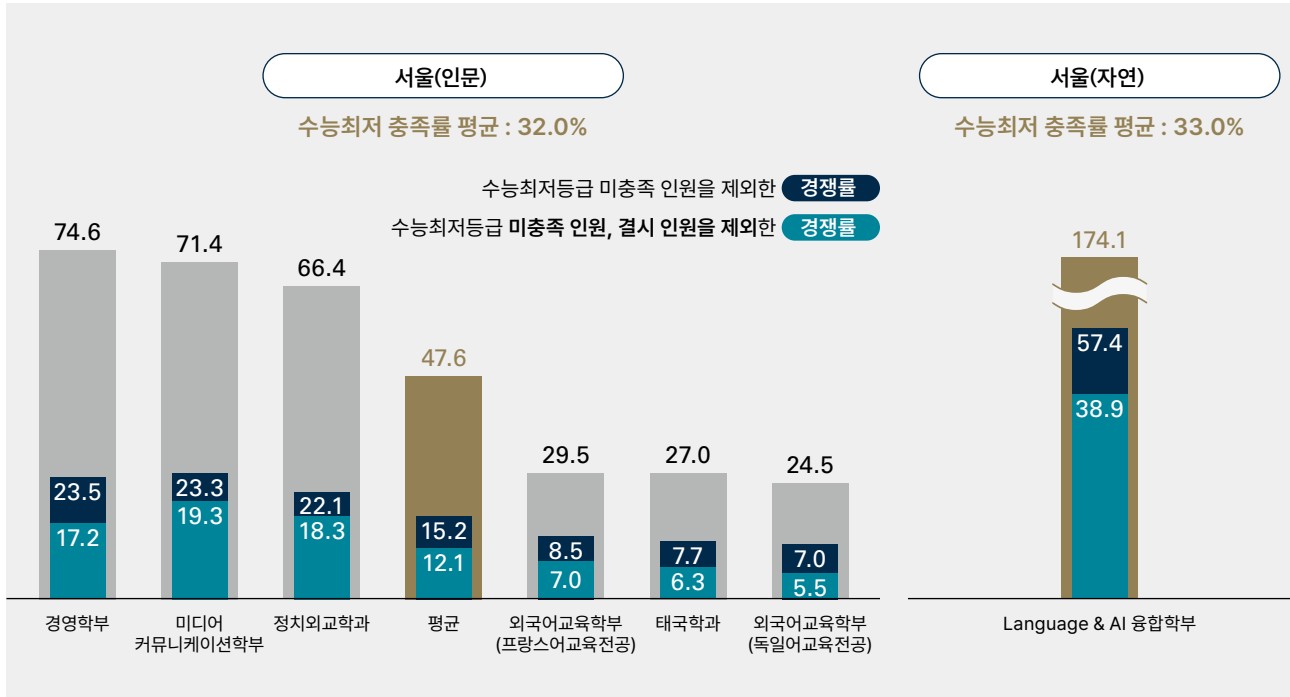
2) 비교내신 적용자의 경우 비교내신 등급표에 의한 환산점수로 동점자 처리

* 학교장추천전형 반영교과목 및 교과별 반영비율, 비교내신 등급표 등은 2026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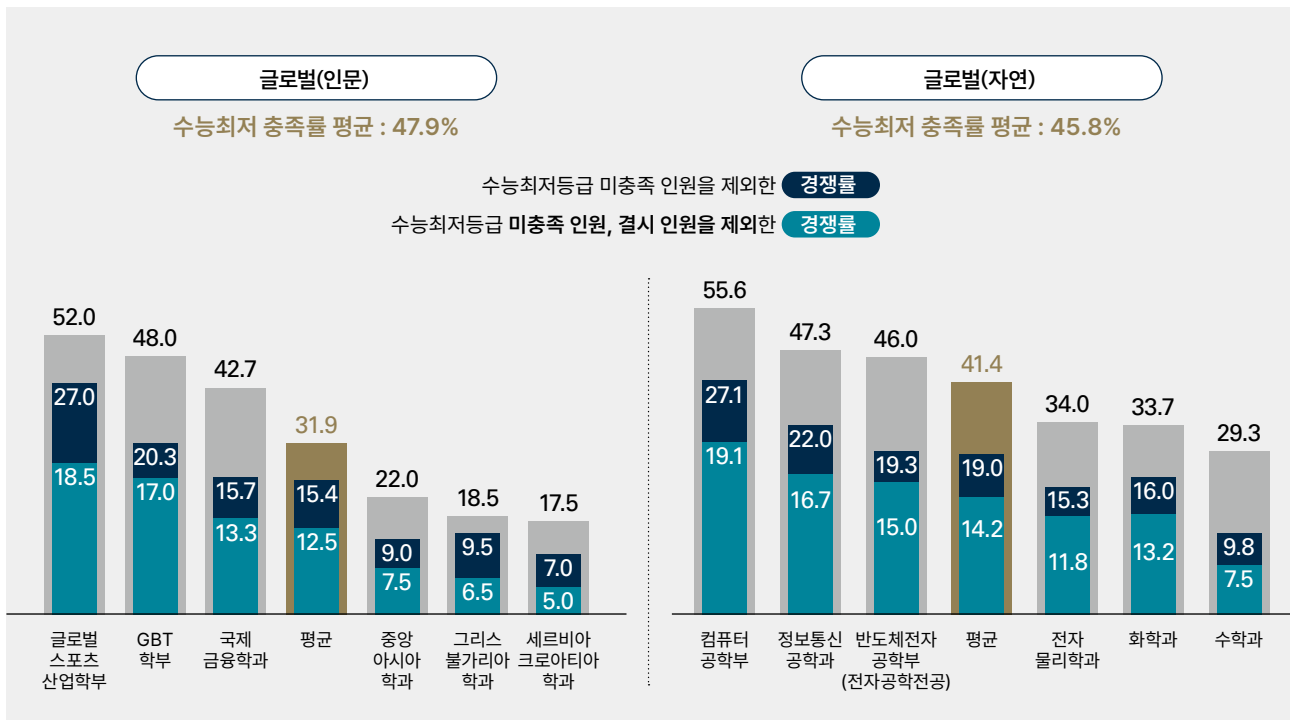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1 | 경쟁률 현황

가. 서울캠퍼스



나. 글로벌캠퍼스



2 | 2025학년도 모집단위별 전형결과

가. 서울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문제 유형	모집 인원	경쟁률	실질 경쟁률*	총원 인원	논술 평균	
영어대학	ELLT학과	인문계	11	35.7	10.7	1	957.2	
	영미문학·문화학과		11	33.8	10.2	2	950.0	
	영어통번역학과		9	34.7	11.2	1	944.2	
	영어대학[통합모집]**		6	33.0	10.7	1	930.2	
서양어 대학	프랑스어학부		10	36.9	8.6	1	931.9	
	독일어과		11	33.5	9.1	1	960.6	
	노어과		6	33.7	6.3	1	952.1	
	스페인어과		11	35.7	10.3	1	965.8	
	이탈리아어과		4	38.0	9.0	2	955.1	
	포르투갈어과		4	32.0	8.0	2	945.0	
	네덜란드어과		4	32.8	8.5	4	922.8	
	스칸디나비아어과		4	32.0	5.8	1	938.9	
	핵심외국어계열**		12	40.8	10.3	1	964.5	
	특수외국어(유럽지역)계열**		3	36.3	9.3	2	930.1	
	아시아 언어문화 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3	32.3	8.0	1	933.3
태국학과			3	27.0	6.3	1	934.6	
베트남어과			3	33.3	8.3	1	930.6	
인도어과			6	34.0	8.0	1	935.6	
아랍어과			3	40.2	11.3	1	942.7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3	43.0	12.7	1	928.6	
페르시아어·이란학과		3	31.7	7.3	1	923.7		
몽골어과		2	38.5	9.5	0	971.3		
특수외국어(인도·아세안지역)계열**		3	44.3	9.3	0	941.2		
특수외국어(중동지역)계열**		3	39.0	9.0	0	925.9		
중국학 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7	30.4	6.6	0	948.1	
	중국외교통상학부	7	33.6	6.3	0	952.7		
	중국학대학[통합모집]**	4	35.5	7.8	0	927.2		
일본학 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7	49.7	10.4	1	933.5		
	융합일본지역학부	5	45.0	12.2	1	931.9		
	일본학대학[통합모집]**	3	43.3	9.0	0	929.6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사회계	7	66.4	18.3	3	968.6	
	행정학과		7	61.4	17.4	0	970.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0	71.4	19.3	2	963.8	
	사회과학대학[통합모집]**		4	62.3	14.8	0	965.4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8	57.1	16.3	4	957.7	
	경제학부		14	60.9	16.2	2	958.1	
	상경대학[통합모집]**		3	46.3	14.3	0	954.2	
경영대학	경영학부		31	74.6	17.2	5	961.1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인문계	4	44.8	12.5	0	979.4
	한국어교육과			2	45.5	15.0	1	922.2
	외국어교육학부(프랑스어교육전공)			2	29.5	7.0	0	918.2
	외국어교육학부(독일어교육전공)	2		24.5	5.5	0	971.8	
	외국어교육학부(중국어교육전공)	2		41.0	10.0	0	986.8	
AI 융합대학	Language & AI융합학부	자연계	7	174.1	38.9	1	980.0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사회계	7	54.7	14.7	0	953.2	
국제학부	3		58.3	12.3	0	939.1		
Language & Diplomacy학부	7		65.9	19.1	3	955.6		
Language & Trade학부	6		57.0	12.3	1	956.9		
자유전공학부(서울)	인문계		16	56.6	14.4	4	966.9	
서울캠퍼스 소계			313	50.4	12.8	56	948.3	

* 실질 경쟁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논술에 실제 응시한 경쟁률

** 대학·계열 통합 모집단위는 2026학년도에는 논술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2025학년도에만 선발)

나. 글로벌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문제 유형	모집 인원	경쟁률	실질 경쟁률*	총원 인원	논술 평균
인문대학	철학과	인문계	3	33.0	11.3	1	961.7
	사학과		3	30.0	14.3	1	976.0
	언어인지과학과		3	22.0	8.7	1	972.3
국가전략 언어대학	폴란드학과		2	26.0	12.5	0	975.2
	루마니아학과		2	23.5	7.0	0	984.2
	체코·슬로바키아학과		2	22.5	12.0	0	969.8
	헝가리학과		2	25.5	9.0	2	971.5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		2	17.5	5.0	0	968.8
	그리스·불가리아학과		2	18.5	6.5	1	952.7
	중앙아시아학과		2	24.5	7.5	0	979.5
	아프리카학부		6	23.5	10.8	2	963.2
	우크라이나학과		2	24.0	7.0	0	944.0
	한국학과	2	22.5	9.5	1	942.7	
경상대학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사회계	6	48.0	17.0	0	945.4
	국제금융학과		3	42.7	13.3	0	938.6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자연계	4	29.3	7.5	0	750.0
	통계학과		4	35.5	12.3	0	827.5
	전자물리학과		4	34.0	11.8	0	763.8
	환경학과		6	37.8	11.2	3	640.0
	생명공학과		6	42.5	15.5	4	587.5
	화학과		6	33.7	13.2	2	703.3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7	55.6	19.1	2	754.3
	정보통신공학과		3	47.3	16.7	3	663.3
	반도체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전공)		4	45.8	15.0	0	658.8
	반도체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5	46.0	15.6	4	821.0
	산업경영공학과		5	45.6	16.4	1	780.0
바이오메디컬공학부				4	42.0	12.3	1
융합인재대학	융합인재학부	인문계	9	28.3	11.8	2	974.6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	디지털콘텐츠학부		5	30.4	10.4	1	970.7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5	27.8	13.2	0	976.8
	글로벌스포츠키산업학부		2	52.0	18.5	1	951.3
AI 융합대학	AI데이터융합학부	자연계	3	41.3	13.0	1	773.3
	Finance & AI융합학부	사회계	3	39.7	10.3	0	937.7
기후변화융합학부		자연계	5	38.2	15.0	0	739.0
자유전공학부(글로벌)		인문계	28	35.9	15.0	6	975.9
글로벌캠퍼스 소계			160	35.8	13.2	40	868.7

* 실질 경쟁률: 능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논술에 실제 응시한 경쟁률

03

2026학년도 논술전형 특징

1 | 고교교육과정 준수 노력

고등학교 교사 참여



- 논술전형 출제와 검토에 고교 교사가 참여하여 제시문 발췌 및 문항 작성 시 핵심 개념을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도움
- 자료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고교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재구성

2015 개정 교육과정



- 출제 문항과 출제 의도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 출제
- 교과별 성취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출제하여 수험생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

적절한 시간과 분량



- 시험 시간과 분량을 적정하게 조절하여 수험생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항을 제시

2 | 논술고사 문제유형

인문계				
문제	유형	배점	출제범위	시험시간
1	분류·요약	280	통합교과형 (영어제시문 1개 포함)	90분
2	비판·평가	320		
3	적용·추론	400		
사회계				
문제	유형	배점	출제범위	시험시간
1	분류·요약	280	통합교과형 (통계·도표자료 1개 포함)	90분
2	비판·평가	320		
3	적용·추론	400		
자연계				
문제	유형	배점	출제범위	시험시간
7문항	계산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100점 만점 (1,000점 환산)	수학I, 수학II	90분

3 | 논술고사 출제방향 TIP

가. 인문계/사회계

□ 한국외대 논술고사는 통합논술을 지향합니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단순 암기를 통한 문제 풀이를 지양하고, 기본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이를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통합논술의 특징은 첫째, 제시문의 형식과 분야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설득적 요소와 설명적인 요소가 담긴 글,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 작품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분야 등에 걸쳐 다채롭게 제시됩니다. 둘째, 문제가 세분화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양한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응용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복합적인 문항이 주어집니다.

□ 한국외대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출제합니다.

논술고사의 출제 전 과정에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출제 이후에 단순히 감수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본교 교수진들과 함께 출제방향 설정, 지문 선정, 문항 출제, 감수 등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논술고사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시문을 선정할 때에는 교과서와 EBS 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제시문의 경우 그 핵심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지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 한국외대 논술고사는 모집단위에 따라 영어 지문 또는 통계 및 도표 자료가 주어집니다.

인문계 영어 지문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어휘나 구문 수준에서 출제되므로 기본에 충실하게 대비하면 됩니다. 전부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국문 제시문의 내용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사회계는 통계 및 도표, 그래프 등이 통합논술을 위한 자료의 영역으로 제시됩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고사는 사고 과정 중심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한국외대 논술고사는 단편적 결과만을 서술하는 유형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과정과 이를 지지하는 타당한 근거를 함께 밝히는 과정 중심의 문제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스스로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분석하고 순차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역량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나. 자연계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과 수학II에서만 출제합니다.

한국외대 자연계 논술고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과 수학II에서만 출제됩니다. 이 외 일반선택과목인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진로선택과목(기하 등), 전문교과에서도 출제하지 않습니다.

□ 풀이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문제로 출제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풀이과정이 과도하게 복잡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수학적 개념과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수학적 논리가 타당한 경우 부분점수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서 및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재만으로 충분히 논술전형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취기준과 행동영역(계산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문제를 출제합니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예제 및 유제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라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4 | 논술고사 문제유형 TIP

가. 인문계/사회계

□ 분류·요약형 문제

분류·요약형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제시문들의 문제에 맞게 분류한 후,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이때 접속어나 연결 어구를 적절히 사용하면 제시문을 자연스럽게 연관시키고 효율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어는 보통 제시문 속에 나타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회적인 표현이나 예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는 제시문이 주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어휘를 새롭게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제를 암시하는 제시문이 주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어휘를 새롭게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는 제시문의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시문 내 문장이 요지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그대로 옮긴다면 독창성이 발휘된 좋은 요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제시문에 사용된 다른 핵심어와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판·평가형 문제

비판·평가형 문제는 논지에 동의하거나, 또는 논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논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을 제시문이 주어지고 하나의 입장을 자유롭게 선택해 상대방 의견을 비판하게 하는 경우,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대입하여 논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상반된 의견 중 하나를 지정한, 자신의 견해와 상관없이 한 쪽 입장을 비판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견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어떤 논리를 적용하여 비판할 수 있는지 평소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입장을 장단점과 예시를 서술할 때, 제시문에 이미 거론된 내용들만 반복해서 언급하거나 지나치게 판에 박힌 사회현상만을 논술할 경우, 식상한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창의적인 분석과 참신한 예시를 위해서는 사회현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글을 읽거나 토론을 통해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적용·추론형 문제

적용·추론형 문제는 영어지문 또는 도표나 그래프를 바탕으로 제시문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제시문을 통해 습득된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우선, 자료에서 주어진 명제 조건을 확인하고 적용의 내용과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질문에 이미 절반의 답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제를 여러 번 읽어 출제자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디에 적용하여 추론해나갈 것인지 숙지하고 단계적으로 답안을 서술해야 합니다.

적용·추론형 문제는 출제자가 의도한 답안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바, 자료의 단순 이해보다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하여 단계적, 논리적 서술에 무게 중심을 두고 명확한 언어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연계

□ 교과서의 수학적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

계산 위주가 아닌 교과서에서 주어진 수학적 개념과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출제합니다. 교과서의 내용 중 개념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 수학적 개념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영역을 중심으로 학습하세요.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여 숫자를 대입하여 답을 얻어내는 방식이 아닌 수학적 개념과 성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능(수학영역) 준비만으로도 논술전형 준비가 가능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과 수학II에서만 출제하기 때문에 수능 선택과목 대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통과목 준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논술전형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수능에만 집중한 학생도 충분히 논술전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5 | 논술전형 CHECK POINT

☑ 수능시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025학년도 서울캠퍼스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률은 인문계/사회계 32.0%, 자연계 33.0%였습니다. 지원자의 65~70% 정도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과 논술시험 결시로 탈락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글로벌캠퍼스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인문계/사회계 충족률은 47.9%, 자연계 45.8%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외대 논술전형 지원자들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실질경쟁률을 보면 합격가능성이 보인다!

앞서 언급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와 논술시험 결시자 발생으로 대부분 모집단위의 실질경쟁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최고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모집단위들의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도 15:1 이상의 경쟁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여 실질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학과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

2025학년도부터 논술 전형방법이 논술고사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학생부 교과성적이 다소 안좋은 수험생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유형 파악과 시간조절 등입니다. 모의논술과 기출문제를 통해 한국외대 논술시험 유형을 파악해 봅시다. 다만, 논술고사 동점자 처리 발생 시 교과 성적을 활용하게 됩니다.

☑ 실제로 쓰는 경험이 중요하다!

출제유형을 철저히 익히고, 기출문제 및 모의논술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세요. 채점기준 및 예시답안을 통해 자신의 답안과 비교하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6 | 논술전형 관련 FAQ

Q1. 수능최저등급의 영향력은 어느정도 인가요?

A1. 2025학년도 수능최저등급 충족률은 아래와 같고, 수능최저 미충족자와 결시자를 제외한 서울캠퍼스 실질경쟁률은 최초 50.4에서 **12.8**까지 낮아졌습니다. 글로벌캠퍼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2025학년도부터 신설되었고, 수능최저 미충족자와 결시자를 제외한 글로벌캠퍼스 실질경쟁률은 최초 35.8에서 **13.2**까지 낮아졌습니다.

단위: 명, %

구분	수능최저등급 (2025학년도 기준)	모집	지원	수능성적 확인자	수능최저 충족	충족 비율
서울 (LD/LT)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 혹은 과학탐구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3이내,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	13	803	794	318	40.1
서울 (LD/LT 제외)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 혹은 과학탐구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이내,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	300	14,970	14,796	4,748	32.1
글로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 혹은 과학탐구 1과목) 중 1개 영역 등급이 3이내,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	160	5,729	5,671	2,688	47.4

Q2. 학생부교과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인가요?

A2. 2025학년도부터 논술 100%로 전형방법이 변경되어 학생부교과가 반영되지 않지만, 논술고사에서 동점자 발생시 학생부교과 점수로 동점자를 처리합니다.

Q3. 한국외대 논술전형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A3. 한국외대 논술전형은 인문계/사회계/자연계,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Q4. 논술고사 시험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A4. 서울캠퍼스, 글로벌캠퍼스 지원자 모두 서울캠퍼스에서 논술고사가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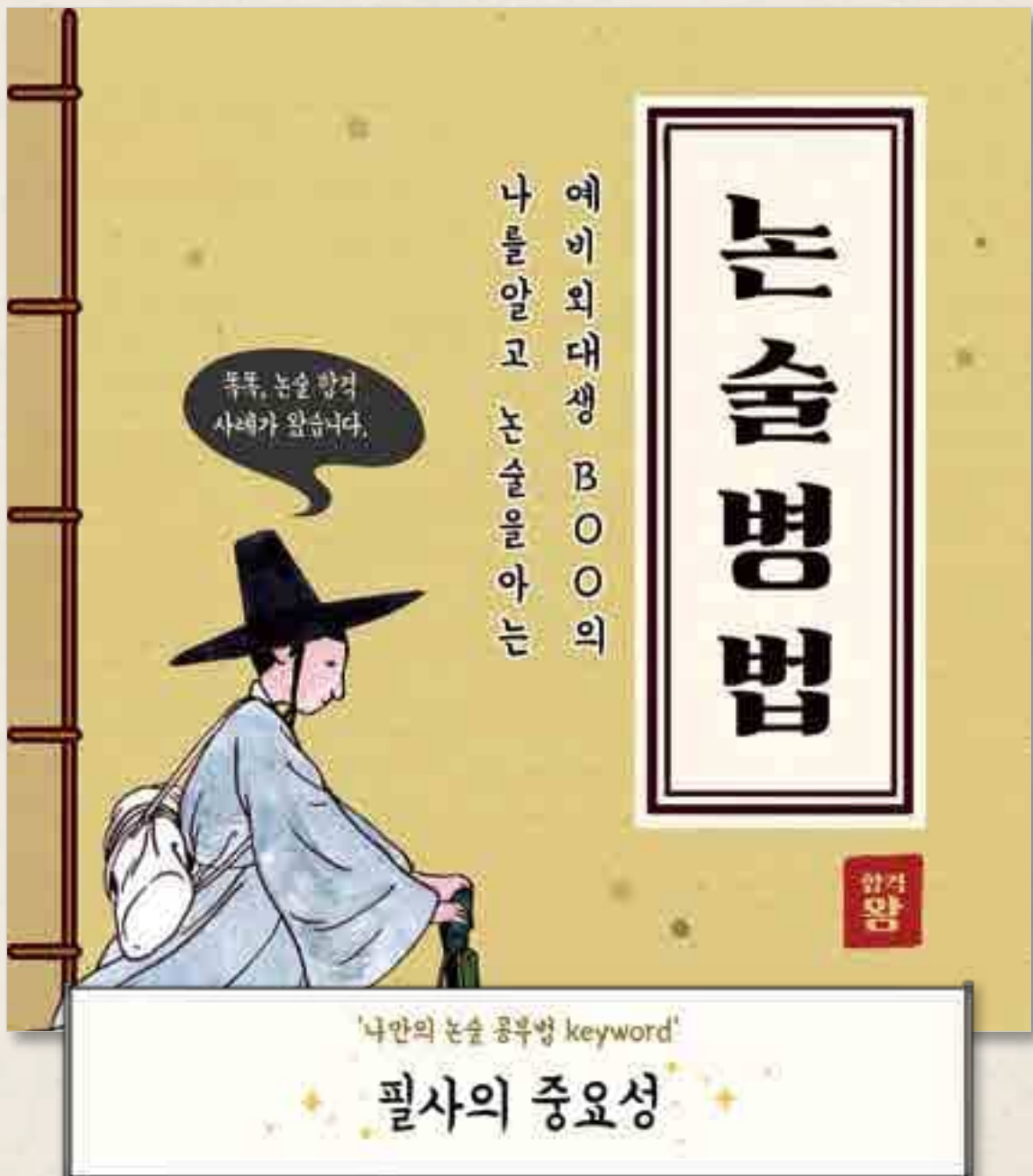
Q5.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전형 총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A5. 논술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각 호수에 따라 정량적으로 감점이 이뤄질 예정이며, 호수별 감점 기준은 본 논술가이드북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한국외대생이 들려주는 논술 합격 비법

* 이 학습법은 인문계·사회계 논술 기준이며, 이 학습법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만의 적합한 공부법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사항으로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 논술방법 하나.

제한된 시간에 맞춰 논술 기출 시험문제를 푼다.

주의
절대 해설 또는
모범답안을 보아서
안 된다!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



二 논술방법 둘.

본인의 답안지와 모범답안을 비교하여 해설을 본다.

자신의 답안이 모범답안과 많이 다르다고 해도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 여기에서 꿀 TIP! >

“색깔별 글씨”

해설을 참고하여 본인의 답안지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색깔펜으로 체크하고, 이를 모범답안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아주아주 상세히 볼 것.

三 논술방법 셋.

모범답안을 필사한다.

단계상법

대학교에서 원하는
모범답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문제들
자신에게 재화시키기
위한 단계이다.
(모범답안 암기 절대
아님!!)



四 논술방법 넷.

새 종이를 가져와서 같은 시험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

주의

제한된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어야 하며, 해설과 모범
답안 그리고 처음 본인이 쓴 답지도 모두 모인 안 된다.

(답을 암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모범답안과 해설과 다른 답안을 썼다고
해도 괜찮다. 반복 훈련을 계속해서 한다면
it's no problem!)

五 논술방법 다섯.

필사를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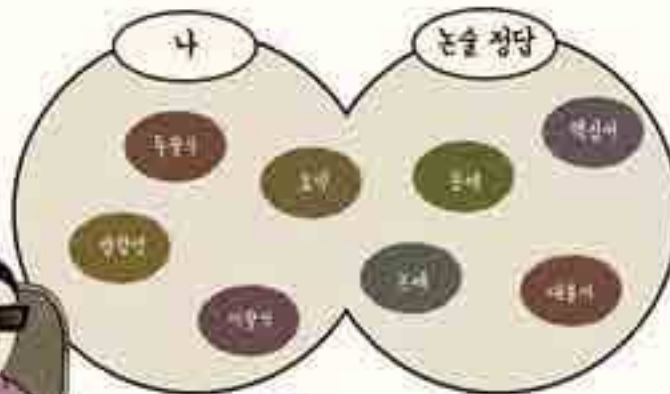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모범답안 써먹는 것은 절대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는 한국의대에서 제시한 모범답안이 두괄식 구성인지 이괄식 구성인지, 어떤 핵심어나 대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해설을 참고하여 모범답안과 자신의 답안을 끊임없이 보면서 본인이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체크하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논제에 포함하도록, 대학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에 적합하게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요. 더불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례적인 구조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할지라도 답안 구조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본인만의 문제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답안이 모범답안이 되는 그 날까지 반복도 반복!

最後 논술방법의 끝

나를 알고 논술 정답을 아는 그대



서로 通 통 하였도다!





05

202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실제 논술고사에서는 본 모의 논술문제와 달리, 문항유형 간(인문계, 사회계) 지문과 문제가 겹치지 않습니다.

가. 문제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전형 모의 논술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2.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 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문항별 답안지 작성 영역에 답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띄어쓰기 포함) 답안의 정해진 작성 분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영역에 작성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5.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6. 답안에 제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고, 지우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논술고사에서는 유의사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은 아인슈타인에게 크게 빚지고 있다. 아인슈타인 이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점은 뉴턴의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의 개념에 기반한 것이었다. 절대공간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불변의 공간이며, 절대시간은 모든 것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를 반박하며 시간과 공간을 서로 분리되지 않은 '시공 연속체'로 인식했다. 시공 연속체 개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말 그대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던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통일된 연속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시공 연속체의 특성이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가령 지구에서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리는 우주선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선에 탄 사람은 자신의 시계가 정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 김동광, 「나와 우주의 벽을 깨부수다」 재구성

(나)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선은 생각처럼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이보그는 기계와 유기체의 합성물을 의미한다. 아무리 단순한 기술이라도 인체와 결합했다면 그것은 이미 사이보그다. 인체에 심박조절기를 삽입했거나 당뇨병 치료를 위해 인슐린 주입기를 부착한 사람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이보그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는 순간부터 혹은 불을 최초로 사용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사이보그였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이 자연 혹은 기술과 분리된 주체라고 믿었던 기존의 관점과는 다르다. 분명한 사실은 전통 휴머니즘이 주장하는 인간, 기술, 자연의 구분이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과거 휴머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과 기술 그리고 자연이 공존·공생하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이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다층적으로 변화하며 기술과 융합된 하이브리드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기계는 하나의 연속체로 파악되어야 한다.

- 김운하, 「영화 <트랜센더스>와 미래의 인간, 포스트휴먼」 재구성

(다)

언어의 분절성은 언어가 불연속적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분절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분절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이마와 뺨은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마'와 '뺨'을 구분하여 부른다. '바다'와 '하늘'은 지평선에서 맞닿아 있으나 별개의 실체로 인식되며, 연속적으로 흐르는 시간 역시 '하루', '한 달', '일 년' 등의 단위로 나누어 인식된다. 또한 무지개의 색상은 매우 다채롭지만, 한국인들은 무지개를 '빨주노초파남보'의 일곱 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 고등학교 교과서, 『언어와 매체』 재구성

(라)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은 도서관학자였던 멜빌 듀이가 고안한 도서 분류 체계이다. DDC는 지식과 학문 분야를 주제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눈다. 대분류는 컴퓨터 과학 및 정보,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언어,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 및 지리 등 10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분류는 10개의 중분류로 나누어지고, 각 중분류는 다시 10개의 소분류로 나뉜다. 이 분류법은 아라비아 숫자를 십진법 형식으로 배열하며, 대분류의 세 자리 숫자 뒤에 소수점처럼 보이는 구두점을 기재하고, 그 이후에는 특정 단계까지 숫자와 기호를 합성하여 나열한다. 예를 들어, 500은 과학을 뜻하며, 510은 수학, 520은 천문학, 530은 물리학이다. 물리학에서도 531은 고전역학, 532는 유체역학을 뜻한다. 듀이십진분류법은 명확히 구분된 범주와 기호 배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 가치가 있다.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의 배치와 관리에 있어 일관적이고 효율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준화된 분류 체계라는 점에서 범용성을 갖고 있으며, 대중이 도서관에서 책을 쉽게 찾도록 하여 도서관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조안 미첼 외, 『도서관 및 정보학 백과사전』에서 발췌·재구성

(마)

MBTI는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심리 검사 도구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 분석법은 개인의 성격을 외향(E)과 내향(I), 감각(S)과 직관(N), 사고(T)와 감정(F), 판단(J)과 인식(P) 등 네 쌍의 지표로 나누고 이를 조합해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10분 내외의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검사하고 자신의 MBTI를 알 수 있다. MBTI를 활용하면, 자신의 성격 유형, 행동 경향, 선호하는 사고방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MBTI를 통해 사람마다 다른 사고방식과 선호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 그러나 MBTI는 고정된 카테고리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게 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사람들의 성격을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한계를 낳을 수 있다. 같은 유형의 사람일지라도 실제 성격은 다를 수 있는데 사람의 성격을 분류해서 고정적인 틀에 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특정 성격 유형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 직장에서 함께 일하기 힘든 동료, 일상생활에서는 사귀지 말아야 할 친구 등으로 손쉽게 분류하는 실수를 저지러 수 있다.

- 천영철, 「MBTI에 빠지다」 등 재구성

(바)

클라인 병은 19세기 수학자 펠릭스 클라인(Felix Klein)에 의해 고안된 비(非)유클리드 기하학적 모형으로, 안과 밖의 구분이 없는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병의 입구가 병의 내부를 지나 다시 본체와 연결되면서, 경계 없이 하나의 면만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므로 3차원 공간에서는 그 형태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으며, 4차원 공간을 가정해야 구현이 가능하다. 클라인 병은 한없이 이어진 하나의 면 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경계 없는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모형이다. 이러한 구조는 수학을 넘어 철학적 사유로 확장된다. 내부와 외부, 시작과 끝,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지는 이 모형은 존재와 인식,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유동적이고 모호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클라인 병은 하나의 닫힌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자신을 계속 넘어가는 구조이며, 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이분법적 시각—예컨대 나와 너, 안과 밖, 주체와 객체—을 재고하게 만든다.

- 고등과학원, 「구멍난 클라인 병」 참고

(사)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 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나그네는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蟲]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것은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血]와 기운[氣]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말·돼지·양·벌레·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에서 발췌

[문제 1]

(가) ~ (바)를 '연속'과 '분절'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80점)

[문제 2]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라)의 DDC와 (마)의 MBTI를 비교·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320점)

<보기>

범주적 사고는 특정 카테고리나 구분법을 활용하여 복잡한 현상이나 대상을 간단명료한 틀에 넣어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고법을 사물이나 물질적 세계에 적용할 경우, 대상의 특징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주적 사고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인간 자체가 극도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감정과 성향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문제 3]

<보기 1>의 철학자와 <보기 2>의 작품에 드러난 공통된 관점을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의 '나그네'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보기 1>

우리는 세상에 명확한 경계가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예컨대 인간과 동물, 남성과 여성, 아동과 성인 사이에는 뚜렷한 구분 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여기까지는 인간, 저 너머는 동물"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질 들뢰즈(Gilles Deleuze)라는 철학자는 이 같은 경계의 실재성을 부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세계에는 고정된 경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는 상호 침투하고 흐르면서 '되기(becoming)'의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강과 바다가 정확히 어디에서 구분되는지를 묻는다면 물이 서로 섞이고 흐르기 때문에 선명한 경계를 정할 수가 없다.

<보기 2>



Francis Bacon's *Three Studies for Figures at the Base of a Crucifixion** is a painting that expresses profound human emotions such as sadness, pain, loneliness, and fear. The three strange-looking figures in the painting are not real monsters; rather, they symbolize the emotional pain and confusion that people often feel inside. These figures are drawn in a way that makes it hard to tell if they are human or animal. Their ambiguous, hybrid forms suggest that the divisions between people and animals, reason and instinct, and beauty and ugliness are not always clear.

* Francis Bacon's *Three Studies for Figures at the Base of a Crucifixion*: 프랜시스 베이컨의 <십자가 책형을 위한 세 개의 습작>

나. 출제 의도

2026학년도 인문계열 모의 논술고사는 '연속'과 '분절'이라는 핵심어를 주제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능력, [문제 2]는 비교·평가 능력,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 1]에서는 제시문의 맥락을 파악하고 '연속'과 '분절'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구조적 논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양한 제시문을 핵심어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제시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도록 했다.

[문제 2]에서는 '범주적 사고'의 관점을 사물이나 물질적 세계에 적용할 경우와 인간에게 적용할 경우 다른점을 비교하고 이를 적용하여 (라) 듀이십진분류법과 (마) MBTI를 평가하도록 했다.

[문제 3]에서는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공통점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의 '나그네'의 관점을 비판하도록 했다.

다. 문항 해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바)는 '연속'으로, (다), (라), (마)는 '분절'로 분류한다.

'연속'과 관련된 제시문

- (가)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실체로 바라본 아인슈타인의 시공연속체를 소개
- (나)는 인간과 기계가 하나의 연속체임을 강조하는 포스트 휴머니스트의 관점을 제시
- (바)는 경계없는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탈경계의 철학을 담아낸 클라인 병을 소개

'분절'과 관련된 제시문

- (다)는 언어의 분절성과 이로인해 발생하는 인간의 분절적 인식을 다룸
- (라)는 멜빌 듀이가 고안한 도서분류체계를 소개한 후 활용가치를 조명함
- (마)는 인간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MBTI를 소개하며 그 효용과 부정적 면을 드러냄

[문제 2]

<보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범주적 사고를 사물이나 물질적 세계에 적용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상을 파악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인간에 적용할 경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구별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라)의 듀이십진분류법은 범주적 사고를 사물에 적용한 것으로, (마)의 MBTI는 인간에 적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제시문 (라): 듀이십진분류법은 명확히 구분된 범주와 기호 배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도서의 배치와 관리에 효율적이며,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을 갖고 있고, 대중의 접근성과 교육활성화에 기여한다.

제시문 (마): MBTI는 범주적 사고를 적용함으로써 사람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성격의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든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인간의 성격을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 있으며, 특정 성격 유형에 대한 편견을 만들 수 있다.

[문제 3]

<보기 1>: 우리는 통상 인간과 동물, 남성과 여성, 아동과 성인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이러한 경계의 실재성을 부정하며, 세계는 고정된 구획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상호 침투하는 존재들의 장이라고 보았다. 들뢰즈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확고한 본질로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는 '되기(becoming)'의 운동 속에 위치한다. 강과 바다의 경계를 예로 들자면, 물이 서로 뒤섞이며 흐르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경계로 삼을 수 없듯이, 세계의 모든 구분 또한 임의적이고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보기 2>: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회화 <십자가 책형을 위한 세 개의 습작>은 슬픔, 고통, 고독, 공포와 같은 인간의 심연을 꿰뚫는 정서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화면에 등장하는 기괴한 형상은 실제 괴물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정서적 상처와 혼란을 상징한다. 이 형상들은 인간인지 동물인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모호하고 혼종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 이성과 본능,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의 경계가 결코 명확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사): 한 나그네가 개가 몽둥이에 맞아 죽는 참혹한 장면을 보고 마음 아팠다며 앞으로 개나 돼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나는 사람이 이를 볼에 태워 죽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 다시는 이를 죽이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그네는 이를 미물로 여겨 내 말을 비웃는 것처럼 받아들였고, 나는 모든 생명체는 피와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다(이 부분이 함축되어 있음).

참고: <보기 2>의 번역

프랜시스 베이컨의 회화 <십자가 책형을 위한 세 개의 습작>은 슬픔, 고통, 외로움, 공포와 같은 인간 내면의 심연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세 개의 기괴한 형상은 실제 괴물이 아니라 내면세계의 고통과 혼란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이 형상들은 인간인지 동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과 동물, 이성과 본능,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라. 채점 기준

[문제 1]

등급		채점 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면에서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나), (바)를 '연속'으로 (다), (라), (마)를 '분절'로 정확히 분류함 - (가) ~ (바)를 '연속'과 '분절'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함 답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문법 등에 있어 오류가 없는 경우 답안의 가독성이 매우 높은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면에서 A+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표현, 문법 등에 있어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답안의 가독성이 높은 경우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면에서 A+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표현, 문법 등에 있어 오류가 일부 있는 경우 일부 문장에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나), (바) vs. (다), (라), (마)로 분류하였으나, (가) ~ (바)를 '연속'과 '분절'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하지 못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표현, 문법 등에 있어 오류가 일부 있는 경우 가독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우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표현, 문법 등에 있어 오류가 일부 있는 경우 일부 문장에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을 (가), (나), (바) vs. (다), (라), (마)로 분류하였으나, (가) ~ (바)를 '연속'과 '분절'의 개념을 제대로 대비 및 요약하지 못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을 (가), (나), (바) vs. (다), (라), (마)로 분류하였으나, 글의 형식에 문제가 많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가) ~ (바)를 잘못 분류한 경우 글자 수(공백 포함)가 200자 이하인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 수와 관계없이)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2]

등급		채점 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상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기>에 소개된 범주적 사고의 두 유형이 명확하게 대비됨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서술함 범주적 사고가 사물이나 물질적 세계에 적용된 사례를 DDC에 적용하여 소개함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 적용된 사례를 MBTI에 적용하여 소개함 (마)에 근거하여, MBTI가 효용 면에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설명함 답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문법 등에 있어 오류가 없는 경우 답안의 가독성이 매우 높은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모두 충족함 표현, 문법 등에 오류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답안의 가독성이 높은 경우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모두 충족함 단, 표현, 문법 등에 일부 오류가 있으며, 일부 문장에서 가독성이 다소 낮은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기>에 소개된 범주적 사고의 두 유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서술하지 못함 범주적 사고가 사물이나 물질적 세계에 적용된 사례(DDC)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함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 적용된 사례(MBTI)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함 MBTI가 효용 면에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설명하지 못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함 표현, 문법 등에 오류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답안의 가독성이 높은 경우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함 단, 표현, 문법 등에 일부 오류가 있으며, 일부 문장에서 가독성이 다소 낮은 경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항목 중 두 가지에 해당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기>에 소개된 범주적 사고의 두 유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서술하지 못함 범주적 사고가 사물이나 물질적 세계에 적용된 사례(DDC)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함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 적용된 사례(MBTI)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함 MBTI가 효용 면에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설명하지 못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항목 중 세 가지에 해당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기>에 소개된 범주적 사고의 두 유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서술하지 못함 범주적 사고가 사물이나 물질적 세계에 적용된 사례(DDC)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함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 적용된 사례(MBTI)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함 MBTI가 효용 면에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설명하지 못함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답안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경우 	

[문제 3]

등급		채점 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상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기 1>에 나타난 철학자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함 <보기 2>에 나타난 작품 속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함 <보기 1>과 <보기 2>의 공통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함 (사)에서 소개된 나그네의 관점을 간결하게 요약함 <보기 1>과 <보기 2>에서 도출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나그네의 관점을 비판함 답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문법 등에 있어 오류가 없는 경우 답안의 가독성이 매우 높은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모두 충족함 표현, 문법 등에 오류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답안의 가독성이 높은 경우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모두 충족함 단, 표현, 문법 등에 일부 오류가 있으며, 일부 문장에서 가독성이 다소 낮은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기 1>에 나타난 철학자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함 <보기 2>에 나타난 작품 속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함 <보기 1>과 <보기 2>의 공통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함 (사)에서 소개된 나그네의 관점을 간결하게 요약하지 못함 <보기 1>과 <보기 2>에서 도출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나그네의 관점을 비판하지 못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함 표현, 문법 등에 오류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답안의 가독성이 높은 경우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함 단, 표현, 문법 등에 일부 오류가 있으며, 일부 문장에서 가독성이 다소 낮은 경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항목 중 두 가지에 해당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기 1>에 나타난 철학자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함 <보기 2>에 나타난 작품 속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함 <보기 1>과 <보기 2>의 공통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함 (사)에서 소개된 나그네의 관점을 간결하게 요약하지 못함 <보기 1>과 <보기 2>에서 도출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나그네의 관점을 비판하지 못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항목 중 세 가지에 해당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기 1>에 나타난 철학자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함 <보기 2>에 나타난 작품 속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함 <보기 1>과 <보기 2>의 공통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함 (사)에서 소개된 나그네의 관점을 간결하게 요약하지 못함 <보기 1>과 <보기 2>에서 도출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나그네의 관점을 비판하지 못함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답안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경우 	

[문제 1]

(가), (나), (바)는 연속으로, (다), (라), (마)는 분절로 분류할 수 있다. (가)는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을 부정하고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실체로 바라본 아인슈타인의 시공 연속체를 소개한다. (나)는 인간과 기계가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임을 강조하는 포스트 휴머니스트의 관점을 제시한다. (바)는 '경계 없는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탈경계의 철학까지도 담아낸 클라인 병을 소개한다. 한편, (다)는 언어의 분절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의 분절적 인식을 다룬다. (라)는 멜빌 듀이가 고안한 도서 분류 체계인 DDC를 소개한 후 이 체계의 활용 가치를 조명한다. 끝으로 (마)는 인간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MBTI를 소개하며, 그 효용과 잠재적 부작용을 설명한다. (400자)

[문제 2]

(마)의 DDC는 범주적 사고에 따라 사물을 분류하는 방식과 연결된다. 이 분류법은 명확하게 구분된 범주와 기호의 배열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의 배치와 관리에 효율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준화된 분류 체계라는 점에서 범용성을 갖고 있으며,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을 돕는다. 반면, (라)의 MBTI는 범주적 사고를 인간에게 적용한 것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지닌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성격을 간편하게 검사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성격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든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정된 카테고리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게 함으로써 다층적인 인간의 성격을 단순화하여 구분하고 특정 성격 유형에 대한 편견을 갖고 성급하게 판단하도록 만든다. (448자)

[문제 3]

<보기 1>에 따르면 질 들뢰즈는 세상의 모든 존재란 '되기'라는 변화의 과정을 지속적, 점진적으로 거치므로 개별적인 존재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존재들 간의 고정된 경계 설정이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을 내포한다. <보기 2>의 작품은 인간의 심리적 고통과 실존적 혼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작품 속 개체는 인간인지 동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게 그려졌다. 이는 곧 사람과 동물, 이성과 본능, 고귀함과 추함 사이의 경계가 본질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따라서 <보기 1>과 <보기 2>는 존재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경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나그네의 입장을 평가하면, 나그네는 개와 같은 육중한 짐승과 이와 같은 미물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있다고 믿으며 개와 이의 죽음을 달리 본다. 이러한 태도는 경계의 불확실성을 주장한 <보기 1>과 <보기 2>의 입장과 상충한다. (500자)

가. 문제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전형 모의 논술
논술고사 문제지 (사회계)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2.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 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문항별 답안지 작성 영역에 답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띄어쓰기 포함) 답안의 정해진 작성 분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영역에 작성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5.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6. 답안에 제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고, 지우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논술고사에서는 유의사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오늘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은 아인슈타인에게 크게 빛지고 있다. 아인슈타인 이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점은 뉴턴의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의 개념에 기반한 것이었다. 절대공간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불변의 공간이며, 절대시간은 모든 것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를 반박하며 시간과 공간을 서로 분리되지 않은 '시공 연속체'로 인식했다. 시공 연속체 개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말 그대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던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통일된 연속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시공 연속체의 특성이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가령 지구에서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리는 우주선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선에 탄 사람은 자신의 시계가 정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 김동광, 「나와 우주의 벽을 깨부수다」 재구성

(나)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선은 생각처럼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이보그는 기계와 유기체의 합성물을 의미한다. 아무리 단순한 기술이라도 인체와 결합했다면 그것은 이미 사이보그다. 인체에 심박조절기를 삽입했거나 당뇨병 치료를 위해 인슐린 주입기를 부착한 사람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이보그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는 순간부터 혹은 불을 최초로 사용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사이보그였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이 자연 혹은 기술과 분리된 주체라고 믿었던 기존의 관점과는 다르다. 분명한 사실은 전통 휴머니즘이 주장하는 인간, 기술, 자연의 구분이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과거 휴머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과 기술 그리고 자연이 공존·공생하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이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다층적으로 변화하며 기술과 융합된 하이브리드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기계는 하나의 연속체로 파악되어야 한다.

- 김운하, 「영화 <트랜센더스>와 미래의 인간, 포스트휴먼」 재구성

(다)

언어의 분절성은 언어가 불연속적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분절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분절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이마와 뺨은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마'와 '뺨'을 구분하여 부른다. '바다'와 '하늘'은 지평선에서 맞닿아 있으나 별개의 실체로 인식되며, 연속적으로 흐르는 시간 역시 '하루', '한 달', '일 년' 등의 단위로 나누어 인식된다. 또한 무지개의 색상은 매우 다채롭지만, 한국인들은 무지개를 '빨주노초파남보'의 일곱 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 고등학교 교과서, 『언어와 매체』 재구성

(라)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은 도서관학자였던 멜빌 듀이가 고안한 도서 분류 체계이다. DDC는 지식과 학문 분야를 주제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눈다. 대분류는 컴퓨터 과학 및 정보,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언어,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 및 지리 등 10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분류는 10개의 중분류로 나누어지고, 각 중분류는 다시 10개의 소분류로 나뉜다. 이 분류법은 아라비아 숫자를 십진법 형식으로 배열하며, 대분류의 세 자리 숫자 뒤에 소수점처럼 보이는 구두점을 기재하고, 그 이후에는 특정 단계까지 숫자와 기호를 합성하여 나열한다. 예를 들어, 500은 과학을 뜻하며, 510은 수학, 520은 천문학, 530은 물리학이다. 물리학에서도 531은 고전역학, 532는 유체역학을 뜻한다. 듀이십진분류법은 명확히 구분된 범주와 기호 배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 가치가 있다.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의 배치와 관리에 있어 일관적이고 효율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준화된 분류 체계라는 점에서 범용성을 갖고 있으며, 대중이 도서관에서 책을 쉽게 찾도록 하여 도서관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조안 미첼 외, 『도서관 및 정보학 백과사전』에서 발췌·재구성

(마)

MBTI는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심리 검사 도구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 분석법은 개인의 성격을 외향(E)과 내향(I), 감각(S)과 직관(N), 사고(T)와 감정(F), 판단(J)과 인식(P) 등 네 쌍의 지표로 나누고 이를 조합해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10분 내외의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검사하고 자신의 MBTI를 알 수 있다. MBTI를 활용하면, 자신의 성격 유형, 행동 경향, 선호하는 사고방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MBTI를 통해 사람마다 다른 사고방식과 선호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 그러나 MBTI는 고정된 카테고리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게 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사람들의 성격을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한계를 낳을 수 있다. 같은 유형의 사람일지라도 실제 성격은 다를 수 있는데 사람의 성격을 분류해서 고정적인 틀에 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특정 성격 유형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 직장에서 함께 일하기 힘든 동료, 일상생활에서는 사귀지 말아야 할 친구 등으로 손쉽게 분류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 천영철, 「MBTI에 빠지다」 등 재구성

(바)

클라인 병은 19세기 수학자 펠릭스 클라인(Felix Klein)에 의해 고안된 비(非)유클리드 기하학적 도형으로, 안과 밖의 구분이 없는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병의 입구가 병의 내부를 지나 다시 본체와 연결되면서, 경계 없이 하나의 면만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므로 3차원 공간에서는 그 형태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으며, 4차원 공간을 가정해야 구현이 가능하다. 클라인 병은 한없이 이어진 하나의 면 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경계 없는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도형이다. 이러한 구조는 수학을 넘어 철학적 사유로 확장된다. 내부와 외부, 시작과 끝,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지는 이 도형은 존재와 인식,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유동적이고 모호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클라인 병은 하나의 닫힌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자신을 계속 넘어가는 구조이며, 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이분법적 시각—예컨대 나와 너, 안과 밖, 주체와 객체—을 재고하게 만든다.

- 고등과학원, 「구멍난 클라인 병」 참고

[문제 1] (400자 내외, 280점)

(가) ~ (바)를 '연속'과 '분절'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80점)

[문제 2] (450자 내외, 320점)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라)의 DDC와 (마)의 MBTI를 비교·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320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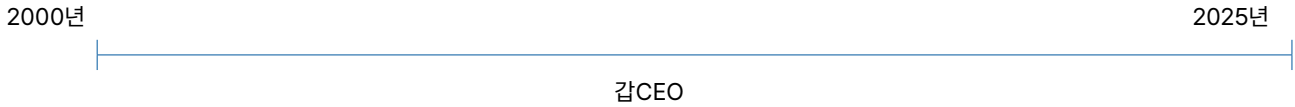
범주적 사고는 특정 카테고리나 구분법을 활용하여 복잡한 현상이나 대상을 간단명료한 틀에 넣어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고법을 사물이나 물질적 세계에 적용할 경우, 대상의 특징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주적 사고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인간 자체가 극도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감정과 성향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문제 3] (500자 내외, 4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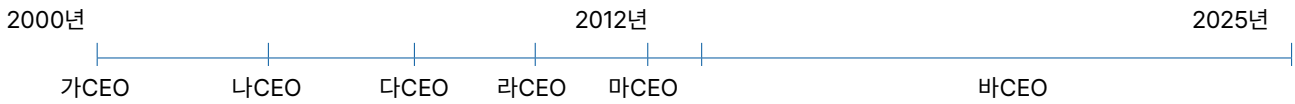
<그림 1> ~ <그림 3>에 기초하여 경영 연속성이 R&D 투자액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에서 2025년까지 C기업(그림 4)의 R&D 투자액 비중의 추세가 어떠했을지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 * R&D(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 * 경영 연속성 외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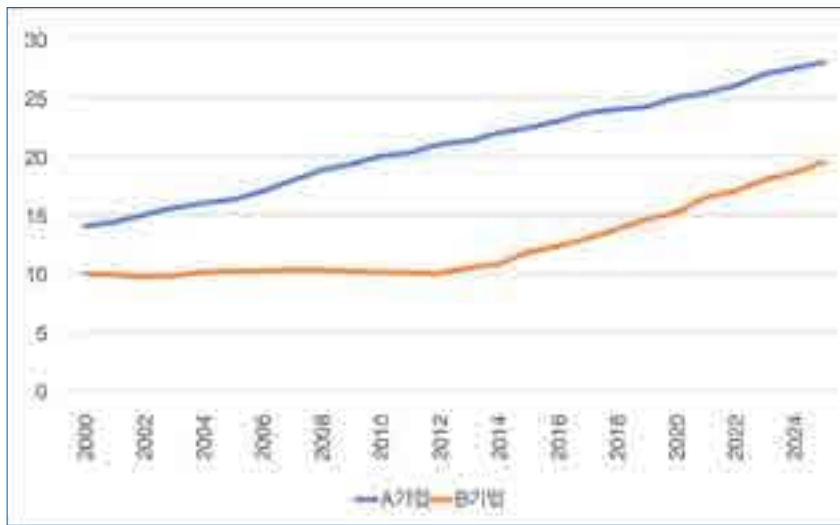
<그림 1> A기업 시기별 CEO



<그림 2> B기업 시기별 CEO



<그림 3>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



<그림 4> C기업 시기별 CEO



나. 출제 의도

2026학년도 사회계열 모의 논술고사는 '연속'과 '분절'이라는 핵심어를 주제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능력, [문제 2]는 비교·평가 능력,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 1]에서는 제시문의 맥락을 파악하고 '연속'과 '분절'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구조적 논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양한 제시문을 핵심어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제시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도록 했다.

[문제 2]에서는 '범주적 사고'의 관점을 사물이나 물질적 세계에 적용할 경우와 인간에게 적용할 경우 다른점을 <보기>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라) 듀이십진분류법과 (마) MBTI에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문제 3]에서는 A기업과 B기업의 경영 연속성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 차이가 R&D 투자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도록 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기업C의 예시에 적용하여 추론하도록 했다.

다. 문항 해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바)는 '연속'으로, (다), (라), (마)는 '분절'로 분류한다.

'연속'과 관련된 제시문

- (가)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실체로 바라본 아인슈타인의 시공연속체를 소개
- (나)는 인간과 기계가 하나의 연속체임을 강조하는 포스트 휴머니스트의 관점을 제시
- (바)는 안과 밖의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경계의 불확실함을 담아낸 클라인 병을 소개

'분절'과 관련된 제시문

- (다)는 언어의 분절성과 이로인해 발생하는 인간의 분절적 인식을 다룸
- (라)는 멜빌 듀이가 고안한 도서분류체계를 소개한 후 활용가치를 조명함
- (마)는 인간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MBTI를 소개하며 그 효용과 부정적 면을 드러냄

[문제 2]

<보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범주적 사고를 사물이나 물질적 세계에 적용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상을 파악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인간에 적용할 경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구별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라)의 듀이십진분류법은 범주적 사고를 사물에 적용한 것으로, (마)의 MBTI는 인간에 적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제시문 (라): 듀이십진분류법은 명확히 구분된 범주와 기호 배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도서의 배치와 관리에 효율적이며,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을 갖고 있고, 대중의 접근성과 교육활성화에 기여한다.

제시문 (마): MBTI는 범주적 사고를 적용함으로써 사람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성격의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든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인간의 성격을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 있으며, 특정 성격 유형에 대한 편견을 만들 수 있다.

[문제 3]

<그림 1>과 <그림 2>에서 나타난 A기업과 B기업의 차이점을 확인한 후, 경영 연속성이 <그림 3>의 R&D 투자액 비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4>의 경영 연속성이 R&D 투자액 비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추론하도록 한다.

<그림 1>의 A기업은 한 명의 CEO가 재임하여 경영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는 <그림 3>에서 A기업의 R&D 투자액 비중이 B기업과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즉, 이는 경영 연속성이 높을수록 R&D 투자 비중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그림 2>의 B기업은 CEO의 재임기간이 일정 기간 매우 짧아 경영의 불연속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후 CEO 한 명의 재임 기간이 길어져 경영 연속성을 보여준다. <그림 3>에서는 B기업의 R&D 투자 비율이 경영의 불연속성이 있었던 기간에는 정체되어 있었던 반면, 경영 연속성이 있었던 기간에는 상승했다.

이를 적용하면, <그림 4>의 C기업은 경영 불연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R&D의 투자 비중이 정체될 것이라고 추론해야 한다.

라.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섯 개의 제시문을 '연속'과 '분절'로 명확히 분류해야 함 (가), (나), (바)를 '연속'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함 (다), (라), (마)를 '분절'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함 	280
문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기>에서 나타난 범주적 사고가 사물 혹은 물질적 세계에 적용할 경우와 인간에게 적용할 경우를 구분하고 (라)와 (마)에 각각 연결하여 비교·평가해야 함 (라)는 범주적 사고를 사물 혹은 물질적 세계에 적용한 경우임을 보여주고 평가해야 함 (마)는 범주적 사고를 인간에 적용한 경우이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보여주고 평가해야 함 	320
문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 1>과 <그림 2>에서 나타난 경영 연속성의 차이를 구분하고, 이를 <그림 3>의 R&D 투자 비중과 연결해야 함 A기업의 경영 연속성과 B기업의 경영 불연속성 및 경영 연속성을 기술해야 함 A의 R&D 투자 비중이 상승했음을 보여주어야 함 B의 R&D 투자 비중은 경영 불연속성을 나타낼 때는 정체되어 있으며, 경영 연속성을 나타낼 때는 상승함을 보여주어야 함 <그림 1> ~ <그림 3>을 바탕으로 <그림 4>의 경영 불연속성과 R&D 투자 비중을 추론해야 함 	400

[문제 1]

등급	채점 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면에서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나), (바)를 '연속'으로 (다), (라), (마)를 '분절'로 정확히 분류함 (가) ~ (바)를 '연속'과 '분절'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함 답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문법 등에 있어 오류가 없는 경우 답안의 가독성이 매우 높은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면에서 A+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표현, 문법 등에 있어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답안의 가독성이 높은 경우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면에서 A+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표현, 문법 등에 있어 오류가 일부 있는 경우 일부 문장에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나), (바) vs. (다), (라), (마)로 분류하였으나, (가) ~ (바)를 '연속'과 '분절'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하지 못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표현, 문법 등에 있어 오류가 일부 있는 경우 가독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우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표현, 문법 등에 있어 오류가 일부 있는 경우 일부 문장에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을 (가), (나), (바) vs. (다), (라), (마)로 분류하였으나, (가) ~ (바)를 '연속'과 '분절'의 개념을 제대로 대비 및 요약하지 못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을 (가), (나), (바) vs. (다), (라), (마)로 분류하였으나, 글의 형식에 문제가 많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가) ~ (바)를 잘못 분류한 경우 글자 수(공백 포함)가 200자 이하인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 수와 관계없이)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2]

등급		채점 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상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기>에 소개된 범주적 사고의 두 유형이 명확하게 대비됨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서술함 범주적 사고가 사물이나 물질적 세계에 적용된 사례를 DDC에 적용하여 소개함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 적용된 사례를 MBTI에 적용하여 소개함 (마)에 근거하여, MBTI가 효용 면에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설명함 답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문법 등에 있어 오류가 없는 경우 답안의 가독성이 매우 높은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모두 충족함 표현, 문법 등에 오류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답안의 가독성이 높은 경우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모두 충족함 단, 표현, 문법 등에 일부 오류가 있으며, 일부 문장에서 가독성이 다소 낮은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기>에 소개된 범주적 사고의 두 유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서술하지 못함 범주적 사고가 사물이나 물질적 세계에 적용된 사례(DDC)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함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 적용된 사례(MBTI)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함 MBTI가 효용 면에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설명하지 못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함 표현, 문법 등에 오류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답안의 가독성이 높은 경우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함 단, 표현, 문법 등에 일부 오류가 있으며, 일부 문장에서 가독성이 다소 낮은 경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항목 중 두 가지에 해당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기>에 소개된 범주적 사고의 두 유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서술하지 못함 범주적 사고가 사물이나 물질적 세계에 적용된 사례(DDC)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함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 적용된 사례(MBTI)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함 MBTI가 효용 면에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설명하지 못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항목 중 세 가지에 해당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기>에 소개된 범주적 사고의 두 유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서술하지 못함 범주적 사고가 사물이나 물질적 세계에 적용된 사례(DDC)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함 범주적 사고가 인간에 적용된 사례(MBTI)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함 MBTI가 효용 면에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설명하지 못함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답안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경우 	

[문제 3]

등급		채점 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1>과 <그림 2>에서 CEO 교체 빈도를 파악하고 A기업이 B기업보다 경영 연속성이 높음을 기술함 - <그림 1>, <그림 2>와 <그림 3>을 연결하여 경영 연속성이 높을수록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이 상승함을 해석함 - B기업에 한정해서 <그림 2>에서 2012년까지 잦은 CEO 교체로 인해 B기업의 경영 연속성이 낮았으나, 이후 CEO 교체가 없어 경영 연속성이 높음을 기술함 - <그림 2>에서 경영 연속성이 낮은 2012년까지 B기업의 R&D 투자액 비중이 정체하였지만, 경영 연속성이 높은 2012년 이후 R&D 투자액 비중이 상승함을 파악함으로써 경영 연속성과 R&D 투자액 비중 간 관계성을 재확인함 - <그림 4>에서 C기업의 경우 해당 기간 내내 CEO 교체가 잦았고 따라서 경영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낮았음을 기술함 - C기업의 경영 연속성이 해당 기간 내내 낮았음에 기초해 R&D 투자액 비중이 정체하였을 것임을 추론함 표현, 문법 등에 오류가 없는 경우 전체적으로 답안의 가독성이 매우 높은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표현, 문법 등에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전체적으로 답안의 가독성이 높은 경우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표현, 문법 등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일부 문장에서 가독성이 다소 낮은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1>과 <그림 2>에서 CEO 교체 빈도를 파악하고 A기업이 B기업보다 경영 연속성이 높음을 기술하지 못함 - <그림 1>, <그림 2>와 <그림 3>을 연결하여 경영 연속성이 높을수록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이 상승함을 해석하지 못함 - B기업에 한정해서 <그림 2>에서 2012년까지 잦은 CEO 교체로 인해 B기업의 경영 연속성이 낮았으나, 이후 CEO 교체가 없어 경영 연속성이 높음을 기술하지 못함 - <그림 2>에서 경영 연속성이 낮은 2012년까지 B기업의 R&D 투자액 비중이 정체하였지만, 경영 연속성이 높은 2012년 이후 R&D 투자액 비중이 상승함을 파악함으로써 경영 연속성과 R&D 투자액 비중 간 관계성을 재확인하지 못함 - <그림 4>에서 C기업의 경우 해당 기간 내내 CEO 교체가 잦았고 따라서 경영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낮았음을 기술하지 못함 - C기업의 경영 연속성이 해당 기간 내내 낮았음에 기초해 R&D 투자액 비중이 정체하였을 것임을 추론하지 못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하나, 표현, 문법 등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내용 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하나, 전체적으로 답안의 가독성이 다소 낮은 경우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하나, 표현, 문법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내용 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하나, 전체적으로 답안의 가독성이 낮은 경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항목 중 어느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1>과 <그림 2>에서 CEO 교체 빈도를 파악하고 A기업이 B기업보다 경영 연속성이 높음을 기술하지 못함 - <그림 1>, <그림 2>와 <그림 3>을 연결하여 경영 연속성이 높을수록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이 상승함을 해석하지 못함 - B기업에 한정해서 <그림 2>에서 2012년까지 잦은 CEO 교체로 인해 B기업의 경영 연속성이 낮았으나, 이후 CEO 교체가 없어 경영 연속성이 높음을 기술하지 못함 - <그림 2>에서 경영 연속성이 낮은 2012년까지 B기업의 R&D 투자액 비중이 정체하였지만, 경영 연속성이 높은 2012년 이후 R&D 투자액 비중이 상승함을 파악함으로써 경영 연속성과 R&D 투자액 비중 간 관계성을 재확인하지 못함 - <그림 4>에서 C기업의 경우 해당 기간 내내 CEO 교체가 잦았고 따라서 경영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낮았음을 기술하지 못함 - C기업의 경영 연속성이 해당 기간 내내 낮았음에 기초해 R&D 투자액 비중이 정체하였을 것임을 추론하지 못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항목 중 어느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1>과 <그림 2>에서 CEO 교체 빈도를 파악하고 A기업이 B기업보다 경영 연속성이 높음을 기술하지 못함 - <그림 1>, <그림 2>와 <그림 3>을 연결하여 경영 연속성이 높을수록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이 상승함을 해석하지 못함 - B기업에 한정해서 <그림 2>에서 2012년까지 잦은 CEO 교체로 인해 B기업의 경영 연속성이 낮았으나, 이후 CEO 교체가 없어 경영 연속성이 높음을 기술하지 못함 - <그림 2>에서 경영 연속성이 낮은 2012년까지 B기업의 R&D 투자액 비중이 정체하였지만, 경영 연속성이 높은 2012년 이후 R&D 투자액 비중이 상승함을 파악함으로써 경영 연속성과 R&D 투자액 비중 간 관계성을 재확인하지 못함 - <그림 4>에서 C기업의 경우 해당 기간 내내 CEO 교체가 잦았고 따라서 경영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낮았음을 기술하지 못함 - C기업의 경영 연속성이 해당 기간 내내 낮았음에 기초해 R&D 투자액 비중이 정체하였을 것임을 추론하지 못함 글자 수(공백 포함)가 200자 이하인 경우 전체적으로 답안의 가독성이 매우 낮은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마. 예시 답안

[문제 1]

(가), (나), (바)는 연속으로, (다), (라), (마)는 분절로 분류할 수 있다. (가)는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을 부정하고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실체로 바라본 아인슈타인의 시공 연속체를 소개한다. (나)는 인간과 기계가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임을 강조하는 포스트 휴머니스트의 관점을 제시한다. (바)는 '경계 없는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탈경계의 철학까지도 담아낸 클라인 병을 소개한다. 한편, (다)는 언어의 분절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의 분절적 인식을 다룬다. (라)는 멜빌 두이가 고안한 도서 분류 체계인 DDC를 소개한 후 이 체계의 활용 가치를 조명한다. 끝으로 (마)는 인간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MBTI를 소개하며, 그 효용과 잠재적 부작용을 설명한다. (400자)

[문제 2]

(마)의 DDC는 범주적 사고에 따라 사물을 분류하는 방식과 연결된다. 이 분류법은 명확하게 구분된 범주와 기호의 배열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의 배치와 관리에 효율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준화된 분류체계라는 점에서 범용성을 갖고 있으며,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을 돕는다. 반면, (라)의 MBTI는 범주적 사고를 인간에게 적용한 것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지닌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성격을 간편하게 검사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성격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든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정된 카테고리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게 함으로써 다층적인 인간의 성격을 단순화하여 구분하고 특정 성격 유형에 대한 편견을 갖고 성급하게 판단하도록 만든다. (448자)

[문제 3]

<그림 1>과 <그림 2>를 보면, A기업의 경우 CEO가 한번도 바뀌지 않은 반면, B기업의 경우 CEO가 다섯 번 바뀌었다. 이는 A기업의 경영 연속성이 B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림 3>을 보면, A기업은 R&D 투자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B기업은 2012년까지 정체를 보이다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경영 연속성이 높을수록 R&D 투자액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 관계성을 B기업에 적용해 해석해 보면, 2012년까지 잦은 CEO 교체로 인해 경영 연속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R&D 투자액 비중이 큰 변화 없이 정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2년 이후 경영 연속성이 높아지면서 R&D 투자액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해석을 <그림 4>의 C기업에 적용해 보면, 해당 기간 내내 잦은 CEO 교체로 인해 경영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낮았으므로, R&D 투자액 비중이 정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500자)

가. 문제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전형 모의 논술
논술고사 문제지 (자연계)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2.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 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문항별 답안지 작성 영역에 답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답안의 정해진 작성 분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영역에 작성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5.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6.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고, 지우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논술고사에서는 유의사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답안지에 반드시 풀이과정 또는 증명과정을 제시하십시오.

[문제 1] 등차수열 $\{a_n\}$ 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S_n 이라 하고, 수열 $\{b_n\}$ 을 $b_n = S_{n+2} - a_{n+1}$ 이라 할 때, 수열 $\{a_n\}$ 과 $\{b_n\}$ 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모든 n 에 대하여 a_n 은 자연수이다.

(나) $(b_2 - b_1)(b_3 - b_2) = 70$

이때 b_3 의 값을 구하십시오. **(10점)**

[문제 2] 1보다 큰 두 상수 a, b 에 대하여 x 에 대한 이차방정식

$$x^2 - \frac{5(\log b - \log 2)}{\log a}x + \frac{2\log a}{\log b} = 0$$

의 두 근이 $\log_a b, \log_b a$ 일 때, $a^3 + b^3$ 의 값을 구하십시오. **(12점)**

[문제 3] 두 실수 x, y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tan(x+y)$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13점)

(가) $0 \leq x \leq \pi, 0 \leq y \leq \pi$

(나) $\cos^2 x + \cos^2 y = \frac{3}{2}$

(다) $\sin x \sin y = \frac{1}{4}$

[문제 4] 삼차함수 $f(x)$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단, $a \neq 1$) (14점)

(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다.

(나) 함수 $|f(x)|$ 는 $x = a$ 와 $x = 1$ 에서만 극솟값을 갖고, 극솟값은 모두 0이다.

(다) $f'(0) = 15$

[문제 5] 함수 $f(x) = \begin{cases} -2(x+1) & (x \leq 0) \\ \frac{1}{2}x-5 & (x > 0) \end{cases}$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16점)**

함수 $g(x) = f(x)f(x-a)$ 는 $x = a$ 에서 연속이다.

[문제 6]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 에 대하여 $f(-1)$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17점)**

$\lim_{x \rightarrow \infty} \frac{f(x)}{x^2} = 1$ 이고, 어떤 양수 a 에 대하여 $\int_{-a}^{2a} f(x)dx = \int_0^{2a} f(x)dx = \int_{-a}^0 f(x)dx$ 이다.

[문제 7]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다음 명제가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18점)**

$21^n + 5^n + 14$ 는 40의 배수이다.

나. 채점 기준 및 예시 답안

[문제 1]

문항 해설

(i) 등차수열 $\{a_n\}$ 의 첫째항을 a , 공차를 d 라 할 때,

조건 (가)에 의해 모든 n 에 대하여 a_n 은 자연수이므로 a 와 d 도 모두 자연수이며,

$$a_n < a_{n+1} \text{ ----- (1)}$$

가 된다. (2점)

(ii) 수열 $\{b_n\}$ 의 정의가 $b_n = S_{n+2} - a_{n+1}$ 이므로

$$\begin{aligned} b_{n+1} - b_n &= (S_{n+3} - a_{n+2}) - (S_{n+2} - a_{n+1}) \\ &= (S_{n+3} - S_{n+2}) - (a_{n+2} - a_{n+1}) \\ &= a_{n+3} - d = a_{n+2} \text{ ----- (2)} \end{aligned}$$

이다.

한편, 조건 (나)에 (2)를 적용하면

$$(b_2 - b_1)(b_3 - b_2) = a_3 \times a_4 = 70 \text{ ----- (3)}$$

이 된다. (2점)

이제 (1), (3)을 만족하는 a_3 과 a_4 를 찾으면 다음과 같다.

$$\begin{cases} a_3 = 1, a_4 = 70 \\ a_3 = 2, a_4 = 35 \\ a_3 = 5, a_4 = 14 \\ a_3 = 7, a_4 = 10 \end{cases}$$

a_3 의 값이 1, 2, 5인 경우는 a_2 의 값이 모두 음수가 되므로 조건 (가)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a_3 = 7, a_4 = 10 \text{ ----- (4)}$$

이 된다. (3점)

그러므로 (4)로부터 수열 $\{a_n\}$ 은 첫째항 a 가 1이고 공차 d 가 3인 등차수열이다. (1점) ----- (5)

(iii) (5)로부터 $b_5 = S_7 - a_6 = \frac{7(2 \times 1 + 6 \times 3)}{2} - (1 + 3 \times 5) = 70 - 16 = 54$ 이다. (2점)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수열 $\{a_n\}$ 의 첫째항 a 와 공차 d 가 모두 자연수이며, $a_n < a_{n+1}$ 임을 유추한다.	2
전개	$b_{n+1} - b_n = a_{n+2}$ 임을 유도하고 조건 (나)에 적용하여 수열 $\{a_n\}$ 의 첫째항 a 와 공차 d 를 찾는다.	6
결론	전개부의 결과를 이용하여 b_5 의 값을 계산한다.	2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2]

문항 해설

(i)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log_a b + \log_b a = \frac{5(\log b - \log 2)}{\log a} = 5 \log_a \frac{b}{2} \text{----- (1)}$$

$$\log_a b \times \log_b a = \frac{2 \log a}{\log b} = 2 \log_b a \text{----- (2)}$$

이다. (3점)

(ii) (2)에 의해 $\log_a b = 2$ 이므로 이차방정식의 두 근 $\log_a b, \log_b a$ 는

$$\log_a b = 2, \log_b a = \frac{1}{\log_a b} = \frac{1}{2}$$

이 된다. (3점)

따라서 (1)에서 $5 \log_a \frac{b}{2} = 2 + \frac{1}{2} = \frac{5}{2}$ 즉, $\log_a \frac{b}{2} = \frac{1}{2}$ 이므로

$$b = 2a^{\frac{1}{2}}$$

이다. 또한 $\log_a b = 2$ 로부터 $b = a^2$ 이므로

$$b = a^2 = 2a^{\frac{1}{2}} \text{----- (3)}$$

이다. (3점)

(iii) (3)에서 $a^2 = 2a^{\frac{1}{2}}$ 으로부터 $a^4 = 4a$ 이므로 $a^3 = 4$ 이고,
 $b = a^2$ 으로부터 $b^3 = a^6 = (a^3)^2 = 16$ 이다. (2점)
 그러므로 $a^3 + b^3 = 4 + 16 = 20$ 이다. (1점)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log_a b, \log_b a$ 에 대한 두 개의 식을 얻는다.	3
전개	도입부에서 얻은 식으로부터 $\log_a b, \log_b a$ 의 값을 찾고 a, b 에 관한 관계식을 얻는다.	6
결론	a^3, b^3 의 값을 각각 구하고 이들의 합을 계산한다.	3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3]

문항 해설

(i) 조건 (나) 에 의해 $\cos^2 x + \cos^2 y = (1 - \sin^2 x) + (1 - \sin^2 y) = \frac{3}{2}$ 이므로

$$\sin^2 x + \sin^2 y = \frac{1}{2} \text{----- (1)}$$

이 된다. 조건 (다) 에 주어진 식의 양변을 제곱하면

$$\sin^2 x \sin^2 y = \frac{1}{16} \text{----- (2)}$$

이다. (3점)

(ii) $\sin^2 x = a$, $\sin^2 y = b$ 라 하면, (1), (2) 로부터

$$a + b = \frac{1}{2}, \quad ab = \frac{1}{16}$$

이고,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a , b 는 t 에 대한 이차방정식

$$t^2 - \frac{1}{2}t + \frac{1}{16} = \left(t - \frac{1}{4}\right)^2 = 0 \text{----- (3)}$$

의 두 근임을 알 수 있다. (2점)

따라서 (3) 으로부터 $a = b = \frac{1}{4}$ 이므로, $\sin^2 x = \sin^2 y = \frac{1}{4}$ 이 된다.

조건 (가) 에 의해 $0 \leq x \leq \pi$, $0 \leq y \leq \pi$ 이므로

$$\sin x = \sin y = \frac{1}{2} \text{----- (4)}$$

이다. (2점)

(iii) 이제 (4)를 만족시키는 x, y 를 모두 찾으면 다음과 같다.

$$\begin{cases} x = \frac{\pi}{6}, y = \frac{5\pi}{6} \\ x = \frac{5\pi}{6}, y = \frac{\pi}{6} \\ x = y = \frac{\pi}{6} \\ x = y = \frac{5\pi}{6} \end{cases}$$

(3점)

따라서 가능한 $x + y$ 의 값은 $\pi, \frac{\pi}{3}, \frac{5\pi}{3}$ 이고, $(x + y)$ 의 값은 $0, \sqrt{3}, -\sqrt{3}$ 이 된다. (2점)

그러므로 $\tan(x + y)$ 의 최댓값은 $\sqrt{3}$ 이다.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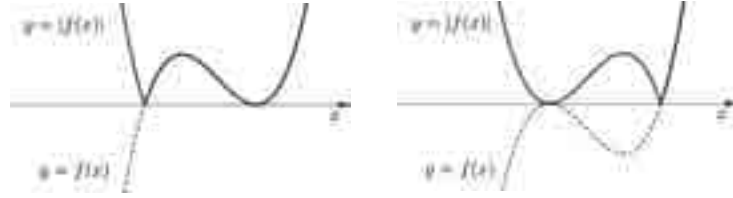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나), (다)의 각 조건으로부터 $\sin^2 x, \sin^2 y$ 에 관한 두 방정식을 얻는다.	3
전개	도입부에서 얻은 식으로부터 $\sin^2 x, \sin^2 y$ 의 값을 찾는다.	4
결론	(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가능한 x, y 의 값을 구하고 $\tan(x + y)$ 의 값을 계산한다.	6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4]

문항 해설

(i) 조건 (나)에 의해 함수 $|f(x)|$ 는 $x = \alpha$ ($\alpha \neq 1$)와 $x = 1$ 에서만 극솟값을 가지므로 함수 $|f(x)|$ 의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가지 경우만 있다. (2점)



따라서

$$f(\alpha) = 0, f(1) = 0 \text{ ----- (1)}$$

이고, $f'(\alpha) = 0$ 또는 $f'(1) = 0$ 임을 유추할 수 있다. (3점)

(ii) $f'(\alpha) = 0$ 인 경우, 조건 (가)와 (1)에 의해

$$\begin{aligned} f(x) &= (x-\alpha)^2(x-1) = (x^2 - 2\alpha x + \alpha^2)(x-1), \\ f'(x) &= (2x-2\alpha)(x-1) + (x^2 - 2\alpha x + \alpha^2) \end{aligned} \text{ ----- (2)}$$

이다. (2점)

조건 (다)에서 $f'(0) = 15$ 이므로 (2)에 의해 $f'(0) = \alpha^2 + 2\alpha = 15$ 가 된다.

즉, $\alpha^2 + 2\alpha - 15 = (\alpha+5)(\alpha-3) = 0$ 이므로 $\alpha = -5$ 또는 $\alpha = 3$ 이다. (2점)

(iii) $f'(1) = 0$ 인 경우, 조건 (가)와 (1)에 의해

$$\begin{aligned} f(x) &= (x-1)^2(x-\alpha) = (x^2 - 2x + 1)(x-\alpha), \\ f'(x) &= (2x-2)(x-\alpha) + (x^2 - 2x + 1) \end{aligned} \text{ ----- (3)}$$

이고, (2점)

(3)에 $f'(0) = 2\alpha + 1 = 15$ 의해 $\alpha = 7$ 가 되므로 이다. (2점)

(iv) 따라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α 의 값은 $-5, 3, 7$ 이고, 이들의 합은 5이다.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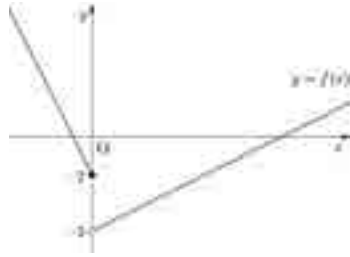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조건 (나)를 만족하는 함수 $f(x)$ 의 개형을 유추하고, 함수 $f(x)$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5
전개	조건 (가), (다)를 이용하여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실수 α 의 값을 구한다.	8
결론	전개부에서 구한 모든 실수 α 의 값의 합을 계산한다.	1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5]

문항 해설

(i) 함수 $f(x)$ 는 $x = 0$ 에서 불연속이므로 함수 $f(x-a)$ 는 $x = a$ 에서 불연속이다. (3점)



(ii) $a = 0$ 일 때, $g(x) = \{f(x)\}^2$ 이 되고,

$$\lim_{x \rightarrow a^+} g(x) = \lim_{x \rightarrow 0^+} \{f(x)\}^2 = 25$$

$$\lim_{x \rightarrow a^-} g(x) = \lim_{x \rightarrow 0^-} \{f(x)\}^2 = 4$$

즉, $\lim_{x \rightarrow a^+} g(x) \neq \lim_{x \rightarrow a^-} g(x)$ 이므로 $a = 0$ 일 때 함수 $g(x)$ 는 $x = a$ 에서 불연속이다. (3점)

(iii) $a \neq 0$ 일 때, $f(x)$ 는 $x = a$ 에서 연속이므로

$$\lim_{x \rightarrow a^+} g(x) = \lim_{x \rightarrow a^+} f(x)f(x-a) = -5f(a)$$

$$\lim_{x \rightarrow a^-} g(x) = \lim_{x \rightarrow a^-} f(x)f(x-a) = -2f(a)$$

$$g(a) = f(a)f(0) = -2f(a)$$

이다. (3점)

따라서 함수 $g(x)$ 가 $x = a$ 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5f(a) = -2f(a) \text{ 즉, } f(a) = 0 \text{ ----- (1)}$$

이어야 한다. (3점)

(iv) (1) 을 만족시키는 a 의 값은 -1 과 10 이 되고, 이러한 모든 실수 a 의 값의 합은

$$-1 + 10 = 9$$

이다. (4점)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f(x)$ 가 $x = 0$ 에서 불연속 함수인 것을 확인한다.	3
전개	$a = 0$ 일 때 $g(x)$ 가 $x = a$ 에서 불연속인 것을 확인하고, $a \neq 0$ 일 때 $g(x)$ 가 $x = a$ 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다.	9
결론	전개부에서 얻은 조건을 만족하는 a 의 값을 찾고, 이러한 a 의 값의 합을 구한다.	4

채점 유의 사항	문항 해설 (i)에서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도 된다.
	2.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3.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4.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6]

문항 해설

(i) 조건 $\lim_{x \rightarrow \infty} \frac{f(x)}{x^2} = 1$ 에 의해 $f(x)$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이다. (3점)

따라서 $f(x)$ 를 $f(x) = x^2 + bx + c$ 라 하자. (1점)

(ii) 어떤 양수 a 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에 의해

$$\begin{aligned} \int_{-a}^{2a} f(x)dx &= \int_0^{2a} f(x)dx + \int_{-a}^0 f(x)dx \\ &= \int_0^{2a} f(x)dx = \int_{-a}^0 f(x)dx \end{aligned}$$

이므로 $\int_0^{2a} f(x)dx = \int_{-a}^0 f(x)dx = 0$ 이다. (3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int_0^{2a} f(x)dx = \int_0^{2a} (x^2 + bx + c)dx = \frac{8}{3}a^3 + 2a^2b + 2ac = 0 \text{ 즉, } \frac{8}{3}a^2 + 2ab + 2c = 0 \text{ ----- (1)}$$

$$\int_{-a}^0 f(x)dx = \int_{-a}^0 (x^2 + bx + c)dx = \frac{1}{3}a^3 - \frac{1}{2}a^2b + ac = 0 \text{ 즉, } \frac{1}{3}a^2 - \frac{1}{2}ab + c = 0 \text{ ----- (2)}$$

(4점)

(2)로부터

$$c = -\frac{1}{3}a^2 + \frac{1}{2}ab \text{ ----- (3)}$$

이고, (3)을 (1)에 대입하면 $2a^2 + 3ab = 0$ 즉, $2a + 3b = 0$ 이므로

$$b = -\frac{2}{3}a \text{ ----- (4)}$$

이다.

또한 (4)를 (3)에 대입하면 $c = -\frac{2}{3}a^2$ 이 된다. (2점)

(iii) 따라서 $f(-1) = 1 - b + c = -\frac{2}{3}a^2 + \frac{2}{3}a + 1 = -\frac{2}{3}\left(a - \frac{1}{2}\right)^2 + \frac{7}{6}$ 이므로, (3점)

$f(-1)$ 은 $a = \frac{1}{2}$ 에서 최댓값 $\frac{7}{6}$ 을 갖는다. (1점)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조건 $\lim_{x \rightarrow \infty} \frac{f(x)}{x^2} = 1$ 로부터 $f(x)$ 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임을 유추하고, $f(x)$ 를 $f(x) = x^2 + bx + c$ 로 나타낸다.	4
전개	어떤 양수 a 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함수 $f(x)$ 의 계수 b , c 를 모두 a 에 관하여 표현한다.	9
결론	$f(-1)$ 의 식이 a 에 관한 이차함수가 됨을 보이고, 이에 대한 최댓값을 찾는다.	4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7]

문항 해설

$a_n = 21^n + 5^n + 14$ ($n \geq 1$)라 하자.

(i) $n = 1$ 일 때, $a_1 = 21 + 5 + 14 = 40$ 이므로 40의 배수이다. (4점)

(ii) $n = k$ 일 때, $a_k = 21^k + 5^k + 14$ 가 40의 배수라 하자. (3점) ----- (1)

(iii) $n = k + 1$ 일 때, $a_{k+1} = 21^{k+1} + 5^{k+1} + 14$ 에서

$$\begin{aligned} a_{k+1} - a_k &= (21^{k+1} + 5^{k+1} + 14) - (21^k + 5^k + 14) \\ &= (21 \times 21^k + 5^2 \times 5^{k-1}) - (21^k + 5 \times 5^{k-1}) = 20 \times 21^k + 20 \times 5^{k-1} \\ &= 20 \times (21^k + 5^{k-1}) \quad \text{----- (2)} \end{aligned}$$

이 된다. (5점)

이때, $21^k, 5^{k-1}$ 은 모두 홀수이므로 $21^k + 5^{k-1}$ 은 짝수이다. (3점)

따라서, (2)에서 $a_{k+1} - a_k = 20 \times (21^k + 5^{k-1}) = 20 \times (\text{짝수})$ 가 되므로 40의 배수이고,

(1)에 a_{k+1} 의해 도 40의 배수이다.

그러므로 $n = k + 1$ 일 때도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 (3점)

(iv) 수학적 귀납법으로부터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n = 1$ 일 때 명제가 성립함을 보인다.	4
전개	$n = k$ 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3
결론	$n = k + 1$ 일 때도 명제가 성립함을 유도한다.	11

채점 유의 사항	1. 수학적 귀납법이 아닌 다른 증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문항 해설의 (iv)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3.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부록] 답안지 양식(자연계 유형)

* 본 양식은 전년도 논술고사 답안지 양식으로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실제 답안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계 답안지 앞면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5학년도 논술고사

※ 감독관 확인란

고 사 실 번 호

--	--	--	--	--

지 원 모 집 단 위

--	--	--	--	--

성 명

--	--	--	--	--

※ 예 : 2006년 2월 1일-060201

수험번호									
2	6								
●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9

생년월일					
0	0	0	0	0	0
1	1	1	1	1	1
2	2	2	2	2	2
3	3	3	3	3	3
4	4	4	4	4	4
5	5	5	5	5	5
6	6	6	6	6	6
7	7	7	7	7	7
8	8	8	8	8	8
9	9	9	9	9	9

【유의사항】

1.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프 및 연필 사용 가능)
2. 수험번호와 생년월일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답안의 작성은 해당 문제 답안 영역에 작성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4. 답안 수정은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기록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프 및 연필 사용 시 지우개 사용 가능)
5. 답안의 내용과 관계없는 일체의 표기를 할 수 없으며, 표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반드시 풀이과정 또는 증명과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문제1]

1

[문제2]

2

[문제3]

3

[문제4]

4

이 줄 아래 답안 작성 시 무효 처리됨.

자연계 답안지 뒷면

이 줄 위에 답안 작성 시 무효 처리됨.

[문제5]

5

[문제6]

6

[문제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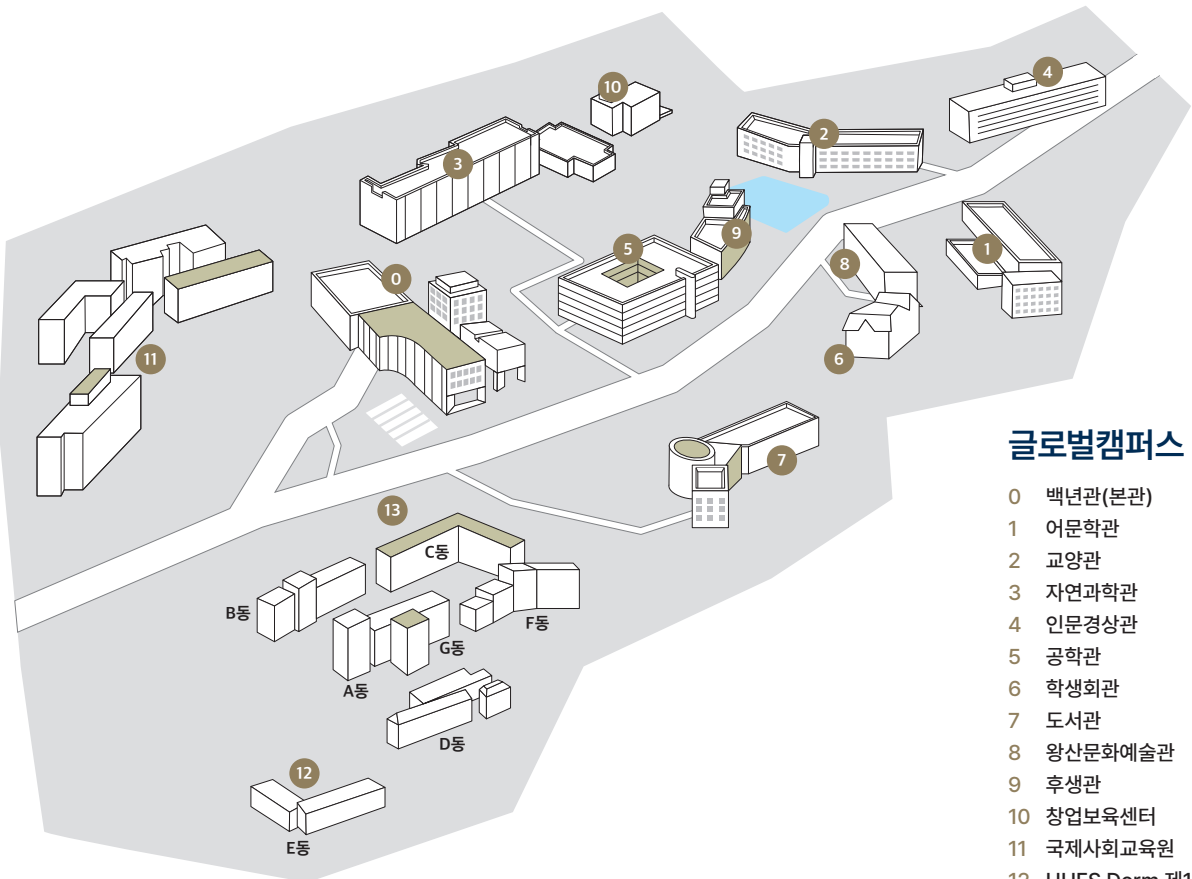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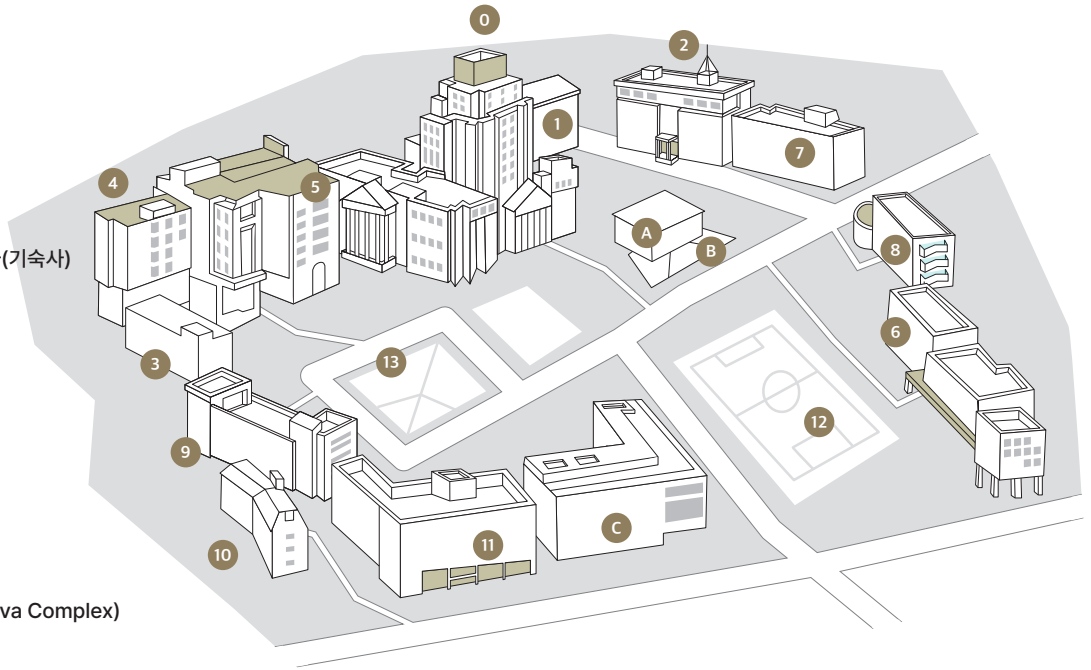
이 줄 아래 답안 작성 시 무효 처리됨.

[2 / 2]

캠퍼스 맵 Campus Map

서울캠퍼스

- 0 본관
- 1 인문과학관
- 2 교수학습개발원
- 3 사회과학관
- 4 학생회관 및 국제학사(기숙사)
- 5 법학관
- 6 대학원
- 7 외국어연수평가원
- 8 국제관
- 9 도서관
- 10 교수연구동
- 11 교수회관
- 12 대운동장
- 13 잔디광장
- A 역사관
- B Obama Hall(Minerva Complex)
- C 사이버관



글로벌캠퍼스

- 0 백년관(본관)
- 1 어문학관
- 2 교양관
- 3 자연과학관
- 4 인문경상관
- 5 공학관
- 6 학생회관
- 7 도서관
- 8 왕산문화예술관
- 9 후생관
- 10 창업보육센터
- 11 국제사회교육원
- 12 HUFs Dorm 제1기숙사
- 13 HUFs Dorm 제2기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입학안내 문의 02-2173-2500
입학처 홈페이지 <https://adms.hufs.ac.kr>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입학처 홈페이지 바로가기